

一在羽溪縣南瑤瑠寺洞
 渠五其三旱羽溪邑土城
 高其二不渴
 古在府直里今遺址
 林雲交冬連樂豐臨
 羽溪縣北淮吾斤
 注乙文陽也所
 陽都護府一人本高
 宗八年辛巳能禦丹兵
 為德寧南宋理宗
 寶祐六年
 陞為府
 山縣本高山縣新
 本朝因之雪嶽時為
 距江陵任內連谷五十里西

속초(束草)의 옛 땅 이름



石城在府西十八步內有
 里旁有峯峯上有亭寒松
 木界高端橫溪珍富大和
 五里烽火五處於乙連在
 北隔南淮海沙火連谷
 昌
 翼嶺為守城別領縣高麗
 嘉四十四年丁巳以降賊
 朝太祖六年丁丑以外
 改襄陽別號襄山屬縣
 顯宗戊午移屬翼嶺縣
 秋降
 祀四境東距海口七里
 十三里戶八百五十七口

속초문화원

속초(束草)의 옛 땅이름

속초문화원

속초(束草)의 옛 땅이름

목 차

발간사	최용문(속초문화원장)	5
총론		7
제 1 장	땅이름의 정리	11
1.	속초(束草) 땅이름 어원의 유래	13
2.	속초라는 땅이름의 등장 시기	15
3.	속진(束津)리와 속초(束草)리의 위치문제	15
4.	천후산(天吼山)	18
5.	비선대(秘仙臺)와 침산정(浸山亭)	20
6.	청초천(靑草川)	23
7.	외웅치(外瓮峙)	25
8.	한자 땅이름의 오류	27
제 2 장	땅이름의 연혁(沿革)	29
1.	고려 이전	31
2.	조선 시대	31
3.	일제 시대	32
4.	해방 이후	33
제 3 장	산천(山川)	35
1.	산(山)	37
2.	호수(湖水)	41
3.	내, 천	43
4.	재, 령	45
제 4 장	행정동의 땅이름 변천	51
1.	도문면(道門面)	53
	도문동(道門洞)	55
	설악동(雪嶽洞)	59

대포동(大浦洞)	78
2. 소천면(所川面)	86
조양동(朝陽洞)	88
교동(校洞)	94
노학동(蘆鶴洞)	97
금호동(琴湖洞)	110
영랑동(永郎洞)	114
등명동(東明洞)	123
청호동(靑湖洞)	127
제 5 장 교량(橋梁)	131
1. 쌍천교	133
2. 상복교	133
3. 척산교	133
4. 신흥교	133
5. 영랑교	133
6. 청초교	134
7. 도문교	134
8. EXPO 1교	134
9. EXPO 2교	134
10. 소야교	134
제 6 장 고적(古蹟)	135
1. 사찰(寺刹)	137
2. 누대(樓臺)	142
3. 성지(城址) 및 봉수(烽燧)	145
4. 탑(塔), 비석(碑石)	148
■ 참고문헌	152
■ 부록 1 옛 문헌(文獻)	153
■ 부록 2 사진으로 보는 속초	177
■ 부록 3 지도(地圖)	193
■ 편집후기	205

발 간 사



최용문 / 속초문화원장

문화를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계승은 실로 인간의 삶을 표현하듯 쉽고도 어려운 시간의 연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속초문화원은 2002년을 마감하면서 지난해 “옛 문헌 속의 속초”와 연계한 “속초의 옛 땅이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손들에게 선조들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부르고 불리웠던 지명을 좀더 정확하게 남겨 두고자 하였습니다.

지난여름 태풍“루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향토사연구소 위원들이 “멈추면 사라진다.”는 의미를 붙들고 비지땀을 흘린 결과에 그 노고를 재삼 치하합니다.

“속초의 옛 땅이름”은 되도록이면 사실적 측면에서 게재토록 연구하였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지명들을 옛 문헌과 고증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후손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다듬어 전해주시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총 론

개발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같이 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땅이름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 개발이라는 논리와 행정기능의 효율화란 측면에서 많은 옛 땅이름이 사라지거나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도시의 모습은 마냥 변해 가는데 이를 가리키는 땅이름만 옛날을 고집할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만들어 낸 오늘의 모습이다. 하지만 개발과 변화만이 능사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안다. 옛 것에 대한 돈독한 관심과 보존이 기반이 될 때 개발과 변화도 의미를 지니게 된다.

속초(束草)는 유서 깊은 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료가 부족하고,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많지 않아 사라진 이름들이 상당히 많다. 향토사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우리 지역의 뿌리 찾기’ 작업을 벌이면서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옛 文獻 속의 束草》라는 사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¹⁾ 이 사료집은 속초(束草)에 관심을 두는 연구자들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속초 지역에 관한 조선 시대 이후의 사료를 망라한 것이다. 우리는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땅이름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과 함께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전의 마을 이름을 기억하시던

1) 《옛 문헌속의 속초》는 2001년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로 삼국사기 이후 조선시대의 기록을 모아 번역 정리한 것이다. 본 《속초의 옛 땅이름》에 인용되는 원문과 해석은 이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인용된 고서에 대한 해제는 《옛 문헌속의 속초》를 참고하기 바람이며,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분들이 연로하여 더 이상 작업을 늦추면 보존이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먼저 땅이름 정리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우리 지역의 땅이름 정리 작업은 1990년 속초문화원이 발간하고 주상훈 선생이 쓴 《속초의 지명》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속초의 지명》은 《한국 지명 총람》 이후에 속초(束草)의 땅이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최초의 서적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업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속초의 지명》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발굴한 사료를 토대로 보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서 새로 정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초(束草)’라는 지명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속초(束草)라는 지명이 사용된 첫 번째 기록은 조선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단(單)²⁾ 10명이다.”와 같은 기록이 있다.

둘째, ‘속진리(束津里)’는 지금의 어디인가?

속진리(束津里)는 현재의 수복탑(收復塔)과 영금정(靈琴亭)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셋째, ‘천후산(天吼山)’은 지금의 어디인가?

천후산(天吼山)은 지금의 울산바위이다. 현재의 울산바위를 오래된 기록들은 대부분 천후산(天吼山)이라 기록하고 있다.

넷째, ‘비선대(秘仙臺)’의 실제 위치는 어디인가?

2) 단(單)은 數의 단위임.

옛 문헌을 보면 지금의 영금정(靈琴亭) 술산 일대를 비선대(秘仙臺)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섯째, ‘청초천(靑草川)’의 옛 이름은 ‘소야천(所野川)’인가?

청초천(靑草川)의 옛 이름은 소야천(所野川)이 아니다. 다만 그 일대의 평야를 소야평야라고도 했는데, 이는 일제 시대에 한글 이름이 한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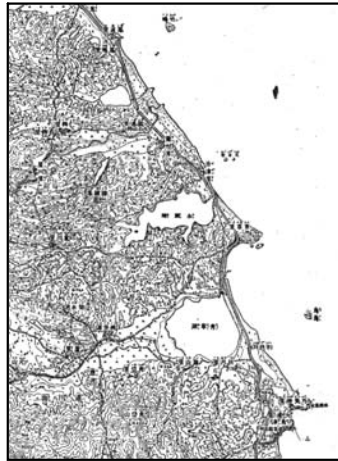
여섯째, ‘외옹치(外瓮峙)’에 관한 문제이다. 조선 시대까지 옹진(瓮津)이라 불려지던 곳이 《면세일반》(1926)에 외옹치(外瓮峙)로 기록되면서, 그 이후 계속 외옹치(外瓮峙)라고 불려지고 있다.

현재 불려지고 있는 땅이름은 부르기엔 무리가 없으나, 알고 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고쳐야 할 것도 있다. 물론 땅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한다. 물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땅이름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작업의 목적은 이 시점에서 현재의 땅이름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잊혀져 가는 우리의 땅이름을 정리하여 후손들에게 바르게 알리려는 의도에서이다.

이 책은 옛 문헌에 근거하였으며, 문헌적 근거가 희박한 것은 수록하지 않았다. 근거 미약으로 일부 이야기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정확한 자료를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각 지역을 답사하며 지역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방향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증언을 토대로 기록을 남기려고 했다.

10 속초(束草)의 옛 땅이름

제 1 장 땅이름의 정리



12 속초(束草)의 옛 땅이름

제 1 장 땅이름의 정리

우리 지역의 땅이름을 정리하다보면 산골짜기 하나하나에도 모두 이름이 있음을 알게 된다. 옛 삶의 체취가 묻어나고 이 땅의 뿌리를 느끼게 하는 옛 이름들이 정겹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들조차도 그 이름을 잘 모르는게 사실이다.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변질된 땅이름도 꽤 있다. 땅이름이 왜 변했는지, 또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속없이 지나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땅이름을 정리하는 작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해 두고자 노력하였다.

지금까지 발굴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속초(束草) 땅이름 어원의 유래

지금까지 연구된 속초(束草) 땅이름 유래는 4가지이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초(束草)는 속새³⁾가 많으므로 황무지, 원야(原野)의 의미로 속새,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 속초(束草)라고 불리었는데,

이 두 땅이름이 함께 사용되다가 속초라는 땅이름만 남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다.⁴⁾

둘째, 지금의 영금정(靈琴亭) 옆에 솔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셋째, 풍수지리학 상 속초(束草) 지형이 와우형(臥牛形)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기 때문에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었다.

넷째, 울산바위에 관한 전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설악산(雪嶽山)에 구경하러 왔던 울산 고을의 원님이 신흥사(神興寺) 승려에게 울산 바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가로 세금을 내라고 하여 해마다 세금을 받아 갔는데, 어느 해에 신흥사(神興寺)의 동자승이 이제 세금을 주지 못하겠으니 이 바위를 도로 울산 땅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울산 고을의 원님이 이 바위를 재로 쪼른 새끼로 묶어 주면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동자승이 청초호(靑草湖)와 영랑호(永郎湖) 사이 곧 지금의 속초(束草) 시가지에 자라고 있는 풀로 새끼를 꼬아 울산 바위를 동여 맨 후 불에 태워 재로 쪼른 새끼처럼 만들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3) 높이 30~60 센치미터로 땅속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모여 나는 관다발 식물로 속새목, 속새과의 상록 양치식물이다.

4)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67)의 강원도 속초시(束草市) 편에 보면 “속초(束草)를 일명 속새, 또는 속진(束津)이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912년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리지자료》에도 束津(속식), 靑草湖(속식기목)라고 기록되어 있다.

청초호(靑草湖)와 영랑호(永郎湖) 사이가 한자로 ‘뭍을 속(束)’자와 ‘풀 초(草)’자로 적는 속초(束草)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와 전설 중에서 지금까지 정설은 첫 번째 것이다. 필자 역시 ‘속새’라는 의미의 어원에 동의한다. 앞의 주4)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속식’라는 땅이름은 일제 시대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불리어졌다. 다만 속진리(束津里)가 지금의 영금정(靈琴亭) 부근이었기에 술산과 관련지어 속초(束草)라는 땅이름이 만들어지고 표기되었는지도 모르겠다.

2. 속초(束草)라는 땅이름의 등장 시기

조선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⁵⁾에 보면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단(單) 10명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최초의 기록이다.

3. 속진리(束津里)와 속초리(束草里)의 위치 문제

속진리(束津里)의 위치 문제는 지금까지 짐작만 할 뿐 정확한 곳을 알 수가 없었다. 확인된 자료 중에서 속진리(束津里)의 위

5) 《世宗實錄》은 단종 2년(1454)에 163권 154책의 필사본 실록으로 완성되었다. 그 중 지리지는 8권으로 팔도의 지리, 역사를 기록하였다.

치를 설명한 것은 일제 시대 쓰여진 《최신조선지리》가 유일하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

속진은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도천면(道川面)에 속한다. 남북에 작은 돌출이 있고, 만형(灣形)을 이룬다. 만의 깊이는 곳의 서쪽에서 북방에 있는 돌각(突角), 즉 비선장이라는 좋은 곳이 있는데 약간 높은 언덕이 둘러싸고 있으며, 수심이 깊어 기선이 정박하는데 적합하다. 군내 유일한 기박(汽舶-큰배)의 기항지이다.杆城郡(杆城郡) 사진(沙津)에서 남쪽으로 10정 떨어져 있고, 양양으로 4리라서 교통이 편리하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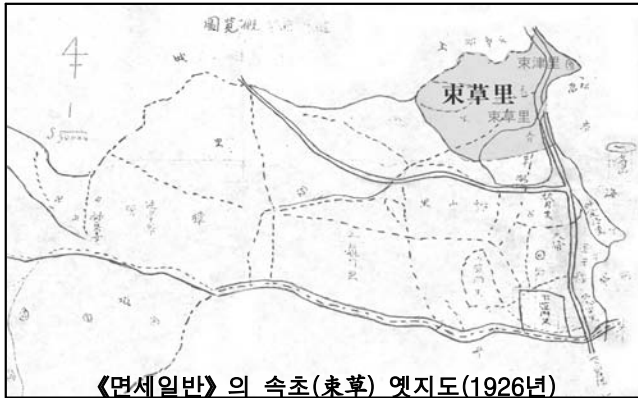
이 글의 내용은 속진이 지금의 영금정(靈琴亭) 일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 준다. 다시 말해 수복탑(收復塔)에서부터 지금의 영금정(靈琴亭) 솔산 일대로 이어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항구가 만들어졌고 이와 함께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럼 속초리(束草里)는 어디인가? 《속초의 지명》에서 밝히듯이 속초리(束草里)와 속진리(束津里)는 인접한 동리였다. 조선 시대(朝鮮時代) 읍지(邑誌)에도 두 동리 모두 양양(襄陽)으로부터의 거리가 35리로 같게 기록되어 있다.

다음의 지도를 보면 속초리(束草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 지도는 속초리(束草里)로 합쳐진 모습이며 아래지역이 속초리(束草里)였다.

6) 藤戶計太, 《최신 조선지리》, 경성일보사대리부, 1918(대정 7년), 203쪽.

7) 이 기록에 나타난 10정은 1,090m 이고, 4리는 15.6km이다.



하지만 주지할 것은 1960년대까지도 시내 쪽은 개발이 되지 않은 형태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마을의 경계는 위의 지도와 같이 정해졌더라도 사람들이 거주한 곳은 영금정(靈琴亭) 일대, 수복탑(收復塔) 뒤쪽, 주교(舟橋)와 가까운 곳 등이었을 것이다. 1960년대의 항공사진을 보아도 현시가지 쪽은 거의 집이 들어서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1960년대 속초(束草) 항공사진

4. 천후산(天吼山)

천후산(天吼山)은 지금의 울산바위이다. 오래된 기록들은 대부분이 천후산(天吼山) 또는 이산(籬山)이라고 하였다. 고성군(高城郡)에서 발간한 《지명유래지》에는 천후산(天吼山)을 신선봉(神仙峰)이라고 해석하고 있다.⁸⁾ 그러나 이는 기록의 모호함 때문에 잘못 해석된 것이다.

천후산(天吼山)에 관한 몇 가지 기록은 다음과 같다.

군의 남쪽 70리에 있다. 이 산에는 바위가 많다. 바람이 산중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운다(天吼)’라고 전해오고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양양(襄陽)과 간성(杆城) 사이에 잣고 큰바람이 이것 때문이라고 하더라. 산에는 성인대가 있고 그 석상의 모양이 불상과 비슷하여 고로 이름을 불였다. 그 옆에는 큰 바위가 쌀곳간(困廩=군름)과 같은데 항간에서 부르기를 화암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옛날에 이 곳에 방수(防戍)가 있었는데 이곳에 있는 돌이 마치 거적 대기를 쌓아 놓은 것으로 보였다. 이 돌은 보여지기가 매마침 양식을 쌓아 놓은 것처럼 보여져서, 적이 퇴각했다는 고로 그 이름을 화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¹⁰⁾

군의 북쪽 5리 설악산(雪嶽山) 동북쪽에 있다. 돌 봉우리가

8) 고성군 문화원, 《지명유래지》, 1998, 310쪽.

9) 방수(防戍)-수자리 살며 국경을 지키.

10) 《관동읍지(關東邑誌) 간성(杆城) 산수조》. “在郡南七十里山多石巖風自中出謂之天吼世傳襄杆之間多大風以此云山有聖人臺有石狀似佛像故名其側大石如困廩俗呼禾巖世傳昔有防戍於此而故以藁苫累此石示適以有峙糧仍以却敵故名之曰”

높게 펼쳐져 있고 버림목처럼 박혀있다. 반은 공중에 떠있고
 뚫린 구멍이 많다. 큰바람이 장차 불려고 하면 산이 먼저 울기
 때문에 이름하게 되었다. 판서를 지낸 윤순이 산의 이름을 산
 아래에 있는 바위에 새겼다.¹¹⁾

이 기록을 보면 천후산(天吼山)의 모양이 나오는데 화암(禾巖)과 함께 기록됨으로 인해 자칫 신선봉(神仙峰)으로 오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산지》를 비롯한 여러 기록¹²⁾에서 계조굴은 천후산(天吼山) 아래에 있다고 명시한다.

정리하면, 울산바위의 원래 이름은 천후산(天吼山)이다. 산에 바위구멍이 많아 바람이 산 중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운다(天吼)’라고 이름지었다고 하며, 다른 이름으로 이산(籬山)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속세에서는 울암(蔚岩)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전설과 함께 울산바위로 굳어졌다.

11)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윤순이 계조암(繼祖庵) 입구에 계조굴이라고 쓴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윤사국이 썼다. 원문은 “在郡北五里雪巖之東北石峯高張撐插半空中多窟穴大風將起山自先鳴故名尹判書淳篆刻山名于山下岩”로 되어있다.

12) 《현산지 사찰조》에는 “在府北五十里天吼山下窟勢豁豁如屋子樣世傳繼祖禪師修道處屈之南盤石上有石一人動之有微動萬人動之動不加焉名以動石窟號三字大刻尹判書淳筆(부의 북쪽 50리, 천후산 아래에 있다. 굴세가 깊어 마치 집과 같다. 세상에 전하기를 계조 선사가 수도하던 곳이라 한다. 남쪽에 돌 하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움직이나, 만 사람이 움직이나 변함이 없다 이름하여 동석이라 한다. 계조굴 3자는 판서 윤순이 쓴 것이다.)” 라고 천후산(天吼山)의 위치를 분명히 적고 있다. 이 이외에도 《여지도서》, 《관동읍지》, 《양양군읍지》, 《강원도읍지》에도 같은 기록이 보인다.

5. 비선대(秘仙臺)와 침산정(浸山亭)

속초(束草)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삼 면이 바다와 잇닿아 있고, 한쪽 면이 육지와 잇닿은 석산(石山)이 있었는데, 이 석산이 술산이다. 지금은 방파제 쪽에 일부만 남아 그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곳 일대를 통칭하여 비선대(秘仙臺)라고 불렀다.

비선대라고 불리게 된 것은 술산위에 비선대라는 정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 시대 말기 속초항 개발 때, 이 석산을 파괴하여 여기서 돌을 채취하여 축항에 이용하였으므로, 현재 석산은 없고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다.



1940년대 영금정(속초항 방파제 축조를 위한 암반 채취 모습)

비선대(秘仙臺)가 술산의 석봉 위에 있었다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¹³⁾

13) 《관동읍지(關東邑誌) 양양 누대조》.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峰峭拔可觀舊有亭今廢”

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데 가히 볼 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비선대(秘仙臺)는 정말 아름다웠다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구체적으로 이 석산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은 없다. 다만 석산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록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솔산이란 곳을 말하자면 속초라는 지명을 만들게끔한 아름다웠던 바다위에 떠있던 작은 섬! 마치 농군이 풀을 베어 단을 졸라맨 모양의 작은 바위섬! 바위위에 노송(老松)이 두 세사람이 팔을 벌려 안아야 할 만큼 큰 소나무가 하늘 높이 우산 모양의 나뭇가지를 등글게 사방으로 뻗어 있다.(중략)

섬이라고는 하지만 섬과 해안선 사이가 넓고 넓은 돌반석이 물밑에 깔렸고 바닷물이 불어나면 섬이 되고 바닷물이 마르면 발목정도 적시면 육지에서 이섬까지 건너갈 수 있었다. 그러던 솔섬이 오늘에 이르러 육지가 꽤 버렸다.(중략)

송림사이로는 울퉁불퉁 묘한 바위들이 장관을 이루며 솟아 있었고, 공작새가 날개를 편 모양이 천년 노송들이 땅바닥을 굽어 보며 묘한 몸매로 쪽! 쪽! 나뭇가지를 늘어뜨렸었다.¹⁴⁾

속초 앞 바다에서 바라보는 솔산의 모습은 가히 바라볼 만한 곳이었을 것이다. 이 산으로 인해 속초(束草)의 땅이름이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하는 설도 만들어진 것을 보면 이토록 아름다운 곳에 정자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14) 김정우, 《내 고향(故郷)》, 강원일보사, 1997. 55쪽.

그러나 근래의 영금정(靈琴亭)¹⁵⁾의 전설과 함께 비선대(秘仙臺)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정자의 존재 여부를 지역에서 만든 책에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⁶⁾ 영금정(靈琴亭)의 전설¹⁷⁾을 말할 때 정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데, 이는 비선대(秘仙臺)가 아닌 영금정(靈琴亭)의 존재로 보면 될 것이다.

침산정(浸山亭)에 관한 기록은 《현산지》에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¹⁸⁾

부의 북쪽 40리, 청초호 동쪽 기슭에 있다. 도암 상서 이재가 일찍이 산을 유람하다 이곳에 도착하여 수 일 동안 시를 읊었다고 한다. 현수 참의 이휘진이 호수 인근에 정자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노년을 이 곳에서 소요하고자 미리 이름을 지어 침산이라 불렀다. 침산이라 이름 지은 이유는 설악산(雪嶽山)의 바위 봉우리가 거꾸로 호수 중간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없다.

15) 영금정(靈琴亭)이란 기록이 처음 나오는 자료는 《면세일반》(1926)이다. 조선 시대에는 영금정(靈琴亭)이란 땅이름이 쓰이지 않았고, 일제 시대에 들어와 불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6) 《관동읍지》, 《관동지》, 《양양군읍지》.

17) 영금정(靈琴亭)의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영금정(靈琴亭)은 누대(樓臺)정자가 있어서 영금정(靈琴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석산 꼭대기에 괴석들이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음곡(音曲)이 들리는데 석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도 하고, 신비한 음곡조(音曲調)를 읊으며 즐기는 곳이라고 하여 비선대(緋仙臺)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18) 《현산지 고적초》. “在府北四十里 靑草湖之東岸 陶庵李尙書緯 嘗遊山到此 數日誦詠 見峴叟李參議集晉 約以臨湖起亭 以作晚年 逍遙之所 而預作名曰浸山 以雪岳峯巖 蘸倒湖心 而然也 今廢”

하지만 정자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미리 이름을 지어 불렀다고 한다. 이것만을 가지고 침산정(浸山亭)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선대(秘仙臺)의 위치를 말할 때 동쪽 기슭이라고 하듯이 침산정(浸山亭) 또한 이 곳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솔산의 경치가 빼어났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6. 청초천(靑草川)

최근에 ‘소야(所野)’라는 땅이름이 널리 쓰이고 있다. ‘소야(所野)’라는 땅이름의 사용과 함께 청초천(靑草川)을 소야천(所野川)이라고 부르는 예도 있는데 이는 잘못 된 것이다.

조선 시대 속초(束草)는 양양군(襄陽郡)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었다. 도문면(道門面)에 대해서는 전설과 함께 그 이름이 만들어져 이해가 되나, ‘소천’이란 이름은 왜 그렇게 불려졌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1960년대의 사진을 보면 청초천(靑草川)의 주변은 온통 논뿐이었다. ‘소천(所川)’이라는 이름은 내(川)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 냇가이다. 이것을 한자로 옮긴 것이 소천(所川)이다.

그럼 청초천(靑草川)의 옛 이름은 무엇일까? 천(川)을 중심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거주한 곳은 노리(蘆里)지역이다. 천의 이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골내였고, 한자로 옮겨 노동천(蘆洞川)이라고 했다. 이것은 일제 시대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조선지지자료》(1912 추정)를 근거한 것이다.¹⁹⁾

하지만 《조선지지자료》에는 ‘소야평’이란 말도 나온다. 그

러나 이 책의 기록은 ‘소야평(所野坪)’이 아니고 ‘소야평(所也坪)’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말로 부르던 ‘왓들우’가 일본인들에 의해 한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소야평(所也坪)’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

‘소야평(所也坪)’은 《면세일반》(1926)에서 ‘소야(所野)’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져 ‘소야팔경(所野八景)’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러다가 《읍세일람》(1959)²⁰⁾에 ‘소야평야(所野平野)’와 ‘소야천(所野川)’으로 기록된다. 결국 일본인들에 의해 잘못 기록된 이름이 《한국지명총람》(1967)에 ‘소야(所野)’라고 옮겨지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1950년대 청초천(靑草川)의 빨래터

19) 《조선지지자료》의 발간 연대를 1912년으로 보는 이유는 이 해에 일본은 식민통치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선지지자료》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입수한 자료는 년대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소천면과 도문면이 따로 기록되어 있다.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합쳐져 도천면(道川面)이 된 것이 1914년이므로 이 자료는 1912년 자료임이 틀림없다.

20) 1959년 속초읍(束草邑)에서 발행

따라서 《읍세일람》의 기록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읍세일람》 기록자가 고증 없이 소야평 안의 천(川)이므로 소야천이라고 한 것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문건²¹⁾ 중에서 《읍세일람》 외에는 소야천(所野川)이라는 기록을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증언도 갈골내라고 기억하고 있었으며, 소야천이라고 증언하는 분들도 ‘소야(小野)천’이라고 불린다고도 하였다.²²⁾

7. 외옹치(外瓮峙)

조선 시대까지 옹진(瓮津)이라고 불리던 곳이 《면세일람》(1926)에 외옹치(外瓮峙)로 등장한다. 이 때부터 옹진(瓮津)이라는 이름 대신 갑자기 나온 외옹치리를 오늘날에도 여과 없이 부르고 있다. 조선 시대의 옹진(瓮津)은 어업을 상징하는 독 나루터 또는 독 나룻가라는 뜻의 한자 표기를 말하는 것인데 반해, 외옹치(外瓮峙)는 어업과 관계없이 바깥 독 고개라는 뜻의 한자 표기 방법이다.

일제 시대가 시작된 1910년대에도 여전히 옹진리(瓮津里)는 존재하고 있었다. 1910년 3월 1일부터 1914년까지 실시된 부령 제 111호의 지방 제도 개혁에 따라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은 도천면(道川面)으로 통합되었으나, 행정 지역으로

21) 현재까지 조사된 문건은 고려 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속초(束草)와 설악산(雪嶽山)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 100여 건을 조사하였다. 그 중 일부는 2001년에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한 《옛 文獻 속의 束草》에 번역하여 정리하였고, 일부는 번역작업을 하고 있다.

22) 김정우, 앞의 책, 40쪽 참조. 그 외에도 삼연 김창흡 선생과 관련지어 이야기하는 소야 8경을 기록에서 찾기 위해 《삼연집(三淵集)》을 살펴봤지만 근거가 될 만한 자료는 없었다.

웅진리(兪津里)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1918년(대정 7년)에 발행 된 《최신 조선지리》에서는 내용진과 외웅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진은 대포리(大浦里)를 외웅진은 외웅치(外兪峙)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웅진(兪津) 모습(1940년대)

그럼 외웅치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대포 고갯길 7번 국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포에서 속초(束草)로 갈 때 고갯길을 통해 현재의 외웅치(外兪峙)로 가게 된다. 이 고갯길 옆에 발뚝이 다닥다닥 층계 모양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발뚝재’라 하였다. 그러던 것이 발음상의 변화로 ‘독재’라 불리었고,²³⁾ 그 결과 《면세일반》 기록 이 후부터 웅진(兪津)이라는 땅이름 대신 ‘바깥 독재’라는 뜻의 한자 표기인 외웅치리(外兪峙里)라는 행정 구역명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23) 김정우, 앞의 책, 57-58쪽 참조.

8. 한자 땅이름의 오류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보면 물치는 물치(勿淄)로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 몇 개의 기록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조선 후기 읍지(邑誌) 등에는 물치(沕淄)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행정상 속초(束草) 물치(勿淄)는 물치리(勿淄里), 양양(襄陽) 물치(沕淄)는 물치진리(勿淄津里)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일제 시대(日帝時代)부터 속초(束草) 물치(勿淄)는 내물치리(內勿淄里), 양양(襄陽) 물치(沕淄)는 ‘물(勿)’자가 ‘물(沕)’자로 바뀌 물치리(沕淄里)로 변화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내물치리(內勿淄里)는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대포동(大浦洞)에 포함되었다.

부월리(扶月里)는 조양동(朝陽洞)의 중심 마을이다. 현재는 ‘도울 부(扶)’를 써서 부월(扶月)로 되어 있으나, 그것으로는 이름의 유래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전에는 ‘뜰 부(浮)’를 쓴 것이 그 후 ‘도울 부(扶)’로 잘못 쓰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부월(浮月)은 ‘물 위에 뜬 달’이 된다. 속초의 땅이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부월(浮月)’이 맞는 말일 것이다.

오늘날 장사동(章沙洞)은 장천리와 사진리가 합해져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장천리(章川里)의 ‘장’은 현재 ‘장(章)’이라고 표기하지만, 이 지명은 장천리(獐川里)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설악동에 있는 노루목 고개가 마치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하여 장항리(獐項里)라고 부르듯이 장천리 또한 노루목 고개가 있다. 이 고개에서 장천리라는 지명이 만들어 졌는

데 사실은 노루라는 짐승과는 관계가 없고, 고개가 보통 목처럼 길게 늘어져서 일반적으로 고개를 우리말로 늘으목, 늘목이라고 하던 것이 노루목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²⁴⁾ 하지만 선인들은 이 고개를 노루와 연결시켜 생각하여 장천리(獐川里)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장천리의 장은 ‘노루장(獐)’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옛 땅이름을 다시 찾아 ‘노루장(獐)’을 표기한 장사동(獐沙洞)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바를 것이다.

토왕성폭포는 현재 ‘토왕성(土旺城)’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옛 문헌들에는 ‘토왕성(土王城)’이라고 하였다. ‘토왕성(土旺城)’이라는 표기는 일제시대 《면세일반》 이후부터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⁵⁾

이상에서 논쟁거리로 남아있던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이외 땅이름과 관련된 많은 논쟁거리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자료들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4)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123쪽.

25) 이는 일본인들이 조선의 땅이름에서 왕(王) 자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에서는 한자 땅이름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토왕성(土王城)’으로 기록한다.

제 2 장 땅이름의 연혁(沿革)



제 2 장 땅이름의 연혁(沿革)

1. 고려 이전

속초(束草)의 역사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²⁶⁾ 인근 양양(襄陽)이나 고성(高城)의 선사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볼 때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역은 당시 사람들의 이동로였기 때문에 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국가들의 태동 이후에는 군장 국가(君長國家)였던 동예(東濊)에 속하였다. 삼국 시대에 들어와서는 고구려의 영토로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 하였고, 신라의 지배 하에 들어가면서 익령(翼嶺)이라 불리었다. 고려 시대로 접어들면 양양(襄陽)에 현령이 파견되면서 전기에는 익령현(翼嶺縣), 후기에는 양주(襄州)라고 불렸다.

2. 조선 시대

조선 시대(朝鮮時代)의 속초(束草)는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작은 동네였다. 영조(英祖)

26) 조양동 선사 유적지(기원전 9~8세기 경)는 구릉에 위치한 전형적인 청동기 시대 집자리이다. 위치는 속초시(束草市) 조양동 산 142번지로 1992년 10월 6일 사적 제376호로 지정되었다.

36년(1760)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보면 “속초리(束草里)는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 35리 거리에 있다. 호(戶) 수는 86호(戶)이고, 인구는 남자 90명, 여자 182명이다.”²⁷⁾라고 기록 되어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도 속초리(束草里)는 인구가 272명인 아주 작은 동네였던 것이다. 하지만 외적의 침범이 심한 동해안에 위치한 까닭으로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²⁸⁾이 설치됨으로 인해 조선(朝鮮)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속초(束草)’라는 이름이 기록 되어 있다.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單) 10명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3. 일제 시대

일제 시대에 들어와 1914년 3월 1일 부령(府令) 제 111호로 지방 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을 통합, 도천면(道川面)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로 구성하여 면사무소를 대포리(大浦里)에 두었다. 1937년 7월 1일 속초리(束草里)로 면사무소를 이동함과 동시에, 도천면(道川面)을 속초면(束草面)으로 개칭하였으며, 1942년 10월 1일 부령 제 104호로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되었다.

27) “束草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八十六男九十口女一百八十二口”

28) 조선 시대 무관직의 하나. 만호·천호·백호 등은 본래 그 관령(管領)하는 민호(民戶)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차차 민호의 수와는 상관없이 진장(鎭將)의 품계를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 육군보다는 수군에 이 명칭이 남아 있으며, 조선 초기에도 만호·부만호·천호·백호 등이 있다가 점차 정리되었다.

4. 해방 이후

해방 이후 38선 이북에 속하였던 속초는 공산 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한국전쟁 때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진주함에 따라 탈환되었으나 1·4 후퇴로 남하, 1951년 2월 11일 재탈환하여 8월 18일 수복지구로 군정 하에 들어갔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 350호로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에 의거 11월 17일 민정으로 이양되면서 16개 리(里)로 구성되었다.

가. 시제(市制) 실시

속초(束草)는 1962년 11월 21일 시(市)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듬해인 1963년 1월 1일 시로 승격되었다. 당시의 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²⁹⁾에 22개 부락과 312개의 반으로 구성되었으며, 10,864가구에 인구는 55,619명 이었다.³⁰⁾

나. 동제(洞制) 실시

1966년 1월 1일 속초시(束草市)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조례 제 95호)의 공포로 리를 동으로 그 명칭을 변경 시행하여, 시 승격 3년 만에 비로소 속초시(束草市)는 동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속초리 1구, 2구 지역을 영랑동, 동명동,

29) 속초리,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부월리, 외용치리, 대포리, 내물치리, 하도문리, 중도문리, 상도문리, 장항리

30) 속초시, 《시정 30년사》(상), 1994, 282쪽.

중앙동으로 속초리 3구, 4구 지역을 금호동으로, 속초리 6구를 청학동, 교동으로 변경하였고,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지역을 노학동으로,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및 부월리를 조양동으로, 속초리 5구 부월리 2구를 청호동으로, 외용치리, 내물치리를 대포동으로, 하도문, 중도문, 상도문리를 도문동으로, 장항리 일원을 설악동으로 각각 변경, 속초시(束草市)는 총 12개 동으로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은 없었다.

다. 동(洞) 신설 및 경계 조정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대통령령 제 6542호)에 따라 고성군(高城郡)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흡수, 장사동으로 개칭, 신설되어 13개 동으로 1개 동 증가되었고,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 1027호로 양양군(襄陽郡) 강현면 상복리 일부가 설악동으로 편입, 법정동으로 통합, 법정동 13개 동, 행정동 13개 동으로 되었다. 1998년 속초시(束草市)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 중앙동과 금호동이 금호동으로, 노학동과 교동 일부가 노학동으로, 대포, 도문, 설악동이 대포동으로, 장사동과 영랑동이 영랑동으로, 동명동, 조양동, 청호동은 그대로 동을 유지 행정 8개 동으로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 3 장 산 천(山川)



제 3 장 산 천(山川)

1. 산(山)

가. 설악산(雪嶽山)

강원도 속초시(束草市), 양양군(襄陽郡), 인제군(麟蹄郡), 고성군(高城郡)에 걸쳐 있는 산으로 신성하고 숭고한 산이라는 뜻에서 설산(雪山)·설봉산(雪峰山)이라고도 부른다.

설악산(雪嶽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는 다음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부의 서북쪽 50리에 있는 진산으로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음력 8월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³¹⁾고 했다. 또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 옛 기록에는 “높은 봉우리들이 즐지어 솟아있고 돌 색깔이 모두 눈 같기 때문에 이름 지었다.”고 했으며, 조선 순조 때 여류 시인 금원(錦園) 여사의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에는 “돌이 눈처럼 하얗다. 그 때문에 설악이라 이름 한다.”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에서 이야기하듯이 ‘설악(雪嶽)’이란 명칭은 눈이 일찍 오고 오래도록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고봉은 주봉인 대청봉(大靑峰)으로 해발 1,708m이다. 대청봉(大靑峰)의 남쪽에 한계령(寒溪嶺), 북쪽에 마등령(馬登嶺)·

3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양양 산천조》. “在府西北五十里鎮山極高峻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

미시령(彌矢嶺) 등의 고개가 있으며, 이들 고개를 연결하는 능선이 태백산맥이다.

인제 쪽인 내설악(內雪嶽)은 북한강(北漢江) 유역인데 미시령(彌矢嶺)·대청봉(大靑峰)·한계령(寒溪嶺)을 수원으로 하여 흐르는 계곡과 산 능선에 백담사(百潭寺)·대승 폭포(大勝瀑布)·옥녀탕(玉女湯) 등의 명소가 있고, 속초(束草)·양양(襄陽) 쪽인 외설악(外雪嶽)은 대청봉(大靑峰)에서 동쪽으로 뺀 능선을 경계로 북외설악과 남외설악으로 나누어진다. 설악산(雪嶽山)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지역’(1982년 8월)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대산(靑垔山)

청대리 남쪽 중도문리(中道門里)와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해발 230m이다. 소나무가 무성하여 청대산(靑垔山)이라고 한 것 같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에 노송 세 그루가 있어 푸르름을 더하였다. 부근에서는 모두 청두산(靑頭山)이라고 한다.

다. 덕산(德山)

설악산(雪嶽山)에서 동쪽으로 뺀 봉우리가 달마봉(達磨峰), 주봉산(朱鳳山), 청대산(靑垔山)을 거쳐 이곳에서 끝난다. 웅진(瓮津)의 끝에 있는 산으로 봉수가 있었기 때문에 덕산 봉수(德山烽隧)라고도 한다. 1940년대까지 봉수대의 석축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라. 천후산(天吼山, 울산바위)

외설악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해발 873m, 둘레 4km이며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위산을 말한다.

이 산에 대한 명칭은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전해온다.

첫째, 우는 산, 울고 있는 산이다.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면, 이 산에 바위 구멍이 많아 산중에서 바람이 스스로 불어 나와 산이 울리는 것 같다고 하여 천후산(天吼山)이라고 한다.

둘째, 거대한 바위가 마치 울타리처럼 우뚝 솟아 있으므로 한자어로 ‘울타리 리(籬)’자를 써서 이산(籬山)이라고 한다.

셋째, 조물주가 금강산(金剛山)을 만들 때, 경상남도(慶尙南道) 울산(蔚山) 지방의 거대한 바위가 금강산으로 찾아가다가 여기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전설적인 이름인 울산(蔚山)바위이다.

산의 이름이 처음으로 거론되는 16세기 중반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18세기 중반에 쓰여진 《여지도서(輿地圖書) 양양편》에는 이산(籬山)으로 기록되어 있고 《여지도서(輿地圖書) 간성(杆城)편》에는 천후산(天吼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세속에서는 울암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세속에서 전승되어 온 전설과 함께 울산바위로 고정되었다.

마. 달마봉(達磨峰)

달마봉(達磨峰)은 신흥사(新興寺) 앞의 세심천(洗心川) 건너 동편에 솟아 있는 봉우리로 해발 526m의 암봉(岩峰)이다. 산봉

우리의 등글기가 흡사 ‘달마’와 같다하여 달마봉(達磨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달마’라는 뜻은 달마 대사의 준말로써 달마 대사는 선종(禪宗)의 시조이며 남인도 향지국(香至國) 왕의 셋째 아들이다.

등글등글한 달마 대사의 모습처럼 달마봉(達磨峰)도 등근 것이 특징이며, 달마봉(達磨峰)에 오르면 오른쪽에 보이는 영랑호(永郎湖)의 잔잔한 물결에 달마봉(達磨峰)의 모습이 비친다고 한다. 이렇듯 달마봉(達磨峰) 풍경은 무엇보다도 봄에 진달래가 필 무렵과 가을의 단풍이 물들 때 만산홍(滿山紅)으로 변한 모습이 아름답다.

바. 주봉산(朱鳳山)

상도문 서북쪽과 척산리(尺山里)와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해발 338m로 산의 모양이 봉황(鳳凰)의 형국이라고 한다. 일명 주봉산(朱峰山), 주왕재라고도 하며, 일제 시대의 기록에는 중왕산(中旺山)이라고 했다. 지도에는 주봉산(朱鳳山)으로 나와 있다.

2. 호수(湖水)

가. 영랑호(永郎湖)

속초시(束草市) 북쪽에 위치한 큰 석호로 둘레 7.8km, 면적 1.21km², 수심 8.5m의 자연 호수로 백사가 퇴적하여 발달한 것이다. 영랑동(永郎洞), 동명동(東明洞), 금호동(琴湖洞), 장사동(章沙洞)으로 둘러 싸여 있다. 영랑교(永郎橋) 밑의 수로를 통해 동해와 연결된다. 호수로 들어오는 물은 장천천이 유일한 데 농경지를 지나 흐르면서 호수로 유입된다. ‘영랑호(永郎湖)’라는 이름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신라의 화랑인 영랑(永郎)이 이 호수에서 풍류를 즐긴 까닭으로 영랑호(永郎湖)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³²⁾

영랑호(永郎湖)는 신라 시대(新羅時代) 화랑(花郎)들이 풍류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많은 문인들이 시문을 남겼다. 조선 시대의 실학자 이증환은 《택리지》에서 구슬을 감춰둔 것 같은 곳이라는 표현으로 영랑호(永郎湖)의 신비로움을 나타냈다.

나. 청초호(靑草湖)

속초시(束草市) 중앙에 위치한 석호(瀉湖)로 면적 1.38km², 둘레 7km의 좁고 긴 사주(砂洲)에 의해 동해와 격리되었으며 북쪽에 입구가 열려 있다. 이 호수는 선박들이 외해(外海)의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천연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조선 시대

32)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영랑호(永郎湖)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高麗) 충정왕(忠定王) 1년(1349)에 쓰여진 이곡(李穀)의 《동유기(東遊記)》이다.

에는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을 두고 병선(兵船)을 정박시킨 일도 있다.³³⁾

일제 시대 말기에 청초호(靑草湖)를 큰 항구로 개발하기 위하여 좁은 입구를 파내고 옆에 축대를 쌓아 큰 배가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때부터 속초(束草)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다른 이름으로 논피호³⁴⁾, 쌍성호(雙成湖), 진성호(震成湖)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 《읍지(邑誌)》에는 용경(龍耕)에 관한 전설이 있다. 청초호(靑草湖)가 한겨울에는 얼음이 얼어 마치 논두렁 같이 되는데, 호수 밑에 사는 용이 갈아 놓은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용경(龍耕) 또는 용갈이라고 하였다. 이 고장에는 영랑호(永郎湖)에는 암룡, 청초호(靑草湖)에는 숫용이 산다는 얘기가 전해 온다. 남쪽을 향해 갈아 놓았을 때는 풍년이 들고, 북쪽을 향해 엇갈이로 갈아 놓았을 때는 흉년이 든다고 하여, 이것으로 다음 해 농사의 길흉을 점쳤다고 한다.

33)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양양 산천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쌍성호, 부(府) 북쪽 40리 간성군(杆城郡)과의 경계에 있으며 둘레가 수십 리다. 호수 경치가 영랑호(永郎湖)보다 훌륭하고 예전에는 만호영(萬戶營)을 설치하여 병선이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雙成湖,在府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34) 논피(論山)라는 마을의 앞에 있는 호수라는 뜻이다.

3. 내, 천

가. 도문천(道門川)

내원동(內院洞)에서 시작하여 식당천(食堂川)과 합하여 물치천(勿淄川)을 이룬다고 하였다. 식당천(食堂川)은 비선대(飛仙臺)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이므로 현재의 세심천(洗心川)과 신흥사(新興寺) 앞쪽에서 합류하여 아래쪽으로 흐르는 물을 말한다.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³⁵⁾

도문천(道門川). 근원은 내원동(內院洞)에서 시작하며 식당천(食堂川)과 합류하여 물치천(勿淄川)을 이루고 다리가 있다.

이 기록과 같이 조선 시대에는 도문천(道門川), 물치천(勿淄川)³⁶⁾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일제 시대부터 쌍천(雙川)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물치(勿淄) 부근에서 두 가닥으로 나뉘져 흐르기 때문이다. 속초시(束草市)와 양양군(襄陽郡)의 경계를 이룬다.

나. 세심천(洗心川)

내원동(內院洞)에서 시작하여 신흥사(新興寺) 앞으로 흐르는 물을 세심천(洗心川)이라 한다. 예전에는 어떻게 불려졌는지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고, 지금은 신흥사(新興寺) 입구에 있으며

35) 《현산지 산천조》. “道門川源出內院洞與食堂川合流爲勿淄川有橋”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

36) 지금은 강현중학교 뒷편으로 흐르는 물을 물치천이라고 한다.

로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에서 세심천(洗心川)이라고 한다.

다. 식당천(食堂川)

비선대(飛仙臺) 위 골짜기를 식당동(食堂洞)³⁷⁾이라고 하는데 식당동(食堂洞)을 거쳐서 내려오는 물을 식당천(食堂川)이라고 한다.

라. 청초천[靑草川, 노동천(蘆洞川), 갈골내]

설악산(雪嶽山) 장항리(獐項里) 서북쪽 달마봉(達磨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여러 골짜기 물을 척산(尺山)에서 합하고, 노학동(蘆鶴洞)을 거쳐 청초호(靑草湖)로 유입되는 하천을 말한다. 예전에는 갈골내라고 하였고, 이를 한자로 노동천(蘆洞川)이라고 하였다.³⁸⁾

37) 한글학회, 《한국 땅이름 큰사전》(중), 1991, 3622쪽.

38) 《조선지리지자료 양양편》.

4. 재, 령

가. 미시령(彌矢嶺)

속초(束草)와 인제(麟蹄)를 연결하는 고개이다. 해발 808m로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원암리(元岩里)와 인제군(麟蹄郡) 북면(北面) 용대리(龍垞里)의 경계가 된다.

미시령(彌矢嶺)은 몇 개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미시과령(彌時坡嶺)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⁹⁾ 이 기록에는 성종(成宗) 이전에 이미 길이 있었지만 험하여 다니지 않았다는 것과, 성종(成宗) 24년에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고 하였다. 대부분 관(官)에서 기록한 것은 미시과령(彌時坡嶺)⁴⁰⁾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까닭은 이전 것을 참고하여 기록한 때문일 것이다.

둘째, 《증보문헌비고》에는 “본 조 성종 때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은 까닭에 다시 이 길을 열고 여수과령(麗水坡嶺)이라고 칭하였다”고 한다.⁴¹⁾

39)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5 간성(杆城) 산천조》. “彌時坡嶺 在郡西南八十里許有路舊廢不行 成宗二十四年以襄陽府所冬羅嶺險阨復開此路”

40) 미시과령(彌時坡嶺)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파른 고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과(坡)는 큰 고개를 의미한다.

41)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23 여지고 2》. “在西南八十里見麟蹄右蔚山見總說 本朝 成宗朝以襄陽府所冬羅嶺險阨復開此路俗稱麗水坡嶺”

셋째,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와 고종 때 편찬된 《증보 문헌비고》에는 미시령(彌時嶺)⁴²⁾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미시령이라는 이름은 이미 영조 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했고, 조선 후기에는 이미 현지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연수파령(連水坡嶺)으로, 《택리지(擇里志)》에는 연수령(延壽嶺)이라고 하였다.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미시파령(彌時坡嶺)으로 불려졌으나 점차 이 길의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관(官)에서는 미시파령(彌時坡嶺)을 미시령(彌矢嶺)으로 바꾸어 불렀고, 그 당시 세간에서는 미시령(彌矢嶺)보다는 연수파령(連水坡嶺), 연수령(延壽嶺), 여수파령(麗水坡嶺)으로 더 많이 부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속초(束草)는 큰 고을이 아니었고 간성군(杆城郡)의 관로는 진부령(陳富嶺)이나 소파령이었을 것이었기에 이 길은 많이 사용되지 않아⁴³⁾ 관청 기록인 미시령(彌矢嶺)이 오늘날까지 알려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전부터 동서를 연결하던 교통로였던 것을, 1960 년경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뚫었다. 이때 당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직접 미시령(彌矢嶺)이라고 써서 세운 비석이 아직도 정상에 남아 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도로가 훼손되어 사실상 폐로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1989년에 다시 개통하였다.

42) 대부분의 기록에서 미시령의 ‘시’자가 ‘時’로 되어 있다. 그러나 《관동읍지(關東邑誌)》에서는 ‘矢’로 되어있다.

43) 《관동지 13 간성군(杆城郡) 산천조》에 보면 “군의 남쪽 80리에 있다. 예전에 왕래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하여 다니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미시령(彌矢嶺)이 험한 까닭이며 그 이후 민간에서 불려지던 이름도 사라졌을 것이고, 다만 관청측 기록으로 나중에 확인되었을 것이다.

나. 목우(牧牛)재

설악동(雪嶽洞)과 노학동(蘆鶴洞) 척산리(尺山里)를 연결하는 고개이다. 이름 유래에 관한 전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⁴⁴⁾ 목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중요한 길의 좁은 곳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사람의 목과도 통하고 나아가서 좁은 고개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목우(牧牛)재는 고개의 뜻인 목에 또 고개란 의미의 재가 중첩 사용되어 목재라고 부르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우재 또는 모기재로 변한 것이고, 그 후 이것을 한자로 목우(牧牛)재라고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노루목 고개

신단지 B지구에서 구단지로 넘어가는, 현재 설악파크호텔 앞에 위치한 낮은 고개로 노루목이라고도 한다. 이 고개에서 장항리(獐項里)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 종전까지는 노루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즉 지형이 마치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 또는 신라(新羅) 때 의상 대사(義湘大師)가 설악산(雪嶽山)으로 가다가 이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데, 문득 흰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 고개와 몸짓으로 길을 인도해 주었다고 설명한다.

노루목 고개라는 땅이름은 전국에 무수히 널려 있고, 속초(束草)에서도 장천리(章川里)에 또 다른 노루목 고개가 있다. 이것

44) 옛날에 현재의 노학동(蘆鶴洞) 일대의 토지가 대부분 신흥사(新興寺) 소유였을 때, 가을 추수 뒤에 농민들이 생산된 양곡을 싣고 신흥사(新興寺)로 가기 위해 이 고개를 넘다가, 우마에게 풀을 뜯게 하며 휴식을 취했다고 하는데, 우마에게 풀을 뜯게 한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목우(牧牛)라는 현재의 한자 표기 이름에 대한 재해석이다.

은 노루라는 짐승과는 관계가 없고 고개가 보통 목처럼 길게 늘어졌으므로, 일반적으로 고개를 우리말로 ‘늘으목’, ‘늘목’이라고 하던 것이 노루목으로 변화되었고, 이것을 한자로 장항(獐項)이라 표기한 것이다.

라. 싸리재

상도문리(上道門里) 2구, 옹구점말과 노학동(蘆鶴洞)을 연결하는 고개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싸리나무가 많아서 싸리재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곳은 싸리나무가 특별히 많지 않다.

《조선지리지》에 보면 한자로 ‘사니(沙泥)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모래와 진흙을 나타내는 한자이다. 또한 상도문리에 거주하는 분들의 증언에서도 진흙 모래가 많아 싸리재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싸리나무나 살인 고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흙 모래가 많아 싸리재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마. 떡발재(떡고개)

논산리(論山里)에서 중도문리(中道門里)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큰 떡발재(큰 떡고개)와 작은 떡발재(작은 떡고개)가 있는데, 큰 떡발재로 넘어가면 중도문리 1구가 나오고, 작은 떡발재로 넘어가면 중도문리 2구가 나온다. 보통 떡발재라고 하면 작은 떡발재를 의미한다. 고개 옆에 밭이 있다.

바. 나무고개 【南燕峙, 나무남재】

대포리(大浦里)에서 중도문리(中道門里)로 넘어가는 고개. 나무꾼들이 쉬어 갔다고 한다.

사. 마등령(馬登嶺)

마등령(馬登嶺)은 높이가 1,327m의 준봉으로 마치 말의 등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옛 기록에는 마등령(馬等嶺)으로 되어 있다. 지금은 등산객들만이 넘어 다니나 예전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에는 속초(束草) 지역 행상인, 민간인들이 동서를 넘어 다닐 때 이용한 옛길 중의 하나이다.

마등령은 설악산(雪嶽山) 대청봉(大靑峯)까지 공룡 능선(恐龍稜線)이라 부르는 암릉의 기점이다. 북쪽의 미시령(彌矢嶺, 826m), 남쪽의 한계령(寒溪嶺, 1,004m)과 함께 태백산맥을 가로지르는 주요 통로였다. 지금은 북한강의 지류인 북천 백담 계곡(百潭溪谷)과 동해로 흐르는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의 비선대(飛仙臺)를 잇는 대표적 등산로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의 중심부이며 이곳에서 바라보는 대청봉(大靑峰)의 조망이 일품이다.

제 4 장 행정동의 땅이름 변천



제 4 장 행정동의 땅이름 변천

1. 도문면(道門面)

조선 시대 부, 면, 리 제도가 실시되면서, 속초(束草) 지역은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의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 지역으로, 장사동 일부 지역은 간성군(杆城郡) 지역에 속하였다. 도문면(道門面)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웅진리, 신흥사(神興寺) 등의 행정 지역이 있었다.⁴⁵⁾

1914년 3월 1일 부령 제 111호로 지방 제도가 바뀌면서 속초(束草) 지역은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합쳐져 도천면(道川面)으로 통합되었는데, 도문면(道門面)이 있던 지역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내물치리, 대포리, 웅진리 외에 중도문리, 장항리(獐項里) 등이 행정 지역으로 신설되었다.

도문면(道門面)에 관한 첫 기록은 1760년경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로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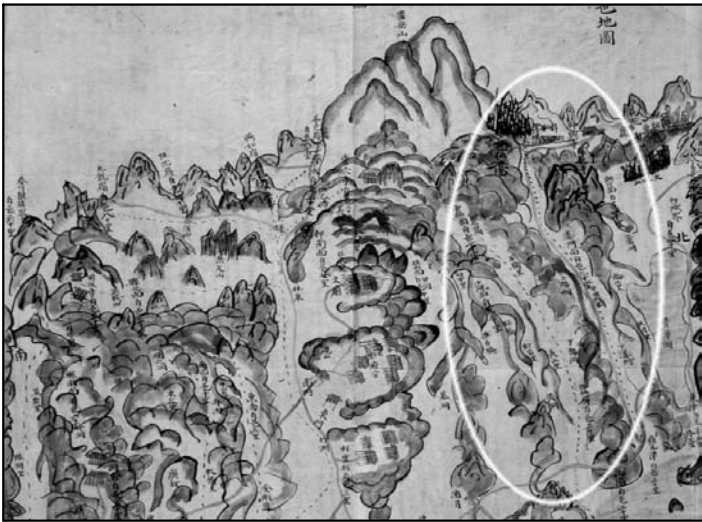
상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 20, 남자 33명 여자 33명
 하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 35, 남자 44명 여자 82명

45) 《관동읍지(關東邑誌) 양양 방리조》, 《관동지 13 양양 방리조》

46) 《여지도서(輿地圖書) 양양 방리조》. “上道門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二十男三十三口女三十三口下道門里自官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五男四十四女八十二口”

이것을 보면 조선 시대에는 도문면(道門面) 관할 하에 상도문리(上道門里), 하도문리(下道門里)가 행정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일제 시대인 1914년에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합쳐져 도천면(道川面)이 되는 과정에서 중도문리(中道門里)가 행정지역으로 신설되었다.⁴⁷⁾

그 후 1966년 동(洞)제를 실시할 때, 상도문리(上道門里), 중도문리(中道門里), 하도문리(下道門里)가 합쳐져 도문동(道門洞)이 되었다가, 1998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대포동과 도문동이 합쳐져 대포동이 되었다.



양양읍 지도(1872, 고종 9년) 속의 도문면(道門面)

47) 1789년(정조13년)에 인구조사인 《戶口總數》에는 하도문리 대신 중도문리가 있다. 그 이후 기록에는 중도문리가 보이지 않는데 18세기 후반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의문이며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도문동(道門洞)

도문리(道門里)는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에 걸쳐 있는 마을이다. 원효, 의상 두 대사가 양양군(襄陽郡) 강선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雪嶽山) 쪽으로 가는데, 이 곳에 이르러 갑자기 숲 속에서 맑고 우아한 곡이 들리며 무상무아의 법을 아뢰는 듯하여 법장을 멈추고 서 있다가 홀연 크게 깨닫고 도통의 문이 열렸다 하는 전설을 바탕으로 도문(道門)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1. 상도문리(上道門里)

그망골(거망동)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 풍수지리적으로 상도문리는 행주형(行舟形)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 골짜기는 그물을 드는 형국이므로 한자로 표기하여 거망동(擧網洞)이라고 하던 것이 변화하여 그망골이 되었다.

도문평【道門坪, 도문뜰, 도문평야】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에 걸쳐 있는 넓은 들. 도문뜰 또는 도문 평야(道門平野)라고도 한다. 넓이 210여 정보, 한해에 2천여 석이 생산된다고 한다.

벼락바위 상도문리 2구, 옹구점말 입구 쌍천(雙川)가에 있는 바위. 크게 갈라져 있는데 벼락을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소태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 풍수지리적으로 상도문리는 행주형(行舟形)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 골짜기는 배의 돛대에 해당하는 형국이므로 돛대골이라고 하던 것이 변화하여 소태골이 되었다고 한다.

수개골 마을 뒤 논이 있는 습지대가 있는 골짜기. 싸리재로 올라가는 길 일대를 말한다.

싸리재 상도문리 2구, 옹구점말과 노학동(蘆鶴洞)을 연결하는 고개(산천편 참조).

옹구점말 상도문리 동쪽에 옹기점(甕器店)이 있었던 마을. 행정상 상도문리(上道門里) 2구로 되어 있었다. 일명 토기점(土器店) 또는 점말이라고도 한다.

절골 마을 뒤(북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본래의 골짜기를 큰 절골, 왼편으로 갈라진 골짜기를 작은 절골 이라고 한다.

주봉산(朱鳳山) 마을 서북쪽 척산리(尺山里)와의 경계에 있는 산(산천편 참조).

학무정(鶴舞亭) 마을 앞(남쪽) 소나무 숲에 있는 육각으로 된 정자(고적편 참조).

배루 고개 벼락이 내리쳐 갈라진 것 같은 가파른 바위가 있었다. 도문교에서 설악산(雪嶽山) 쪽으로 길 따라 올라 가다가 절

벽을 만나는 지점으로 지금은 일부만 남아 있다.

산지당골 골말에서 뒤(북쪽)로 더 들어간 골짜기. 다른 말로 무승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산신령께 산제사를 지내던 산제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수재 지형이 학의 머리와 같이 생겼다 하여 이렇게 부른다. 배루 고개 위쪽임.

2. 중도문리(中道門里)

고치골 삼박골 동쪽에 위치한 골짜기.

골말 중도문리 1구의 다른 이름으로 골짜기 마을이란 뜻이다.

나무고개 중도문에서 대포로 넘어가는 고개(산천편 참조).

대랑골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떡밭재 중도문리와 논산리를 연결하는 고개(산천편 참조).

별말 중도문리 2구의 다른 이름으로 별판 마을이란 뜻이다.

사당골 마을 북서쪽, 무승골 서편 골짜기이다.

삼박골 사당골 서편 골짜기. 삼(麻)이 많이 생산되던 골짜기로

삼밭골이 변하여 삼박골이 되었다. 마전동이라고도 한다.

신문덕 중도문과 하도문 사이에 있는 야트막한 고개.

아랫말 중도문리 2구의 다른 이름으로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윗말 중도문리 1구의 다른 이름으로 위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자매시 기념공원 미국 오리건(Oregon)주 그레섬(Gresham)시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원. 하도문(下道門)과의 경계 지대에 있다.

청룡암(靑龍庵) 청대산(靑岱山) 밑(남쪽)에 있는 절.

충혼탑(忠魂塔) 속초시(束草市) 출신의 전몰(戰歿) 군경(軍警)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탑. 본래 1964년 5월 동명동(東明洞) 등대 서편 산등성이에 건립하였던 것을, 영랑호(永郎湖) 남동쪽의 현재 체육 공원 자리로 옮겼다가, 다시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 자매시 기념 공원 옆(서쪽)에 있다.

사그막 【사금원】 상도문 2구와 중도문 2구 사이에 있는 넓은 들관

3. 하도문리(下道門里)

건너말 하도문(下道門) 입구에 있는 마을. 양짓말에서 보면 마을 중간에 있는 작은 개울 건너편(남쪽) 마을이 된다.

고양터 (골) 마을 서북쪽 고양터 위에 있는 골짜기.

고양터 (논) 하도문 앞에 있는 논. 과거에 고(高)씨와 양(梁)씨가 살은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골논 마을 뒤(북쪽) 고양터 동편 골짜기.

괴골 마을 뒤(북쪽) 골논 동편 골짜기.

도갯소 쌍천(雙川)가에 있는 소(沼). 도깨비가 자주 출현했다고 하여 도깨비소라고 하던 것이 도갯소로 변화 되었다.

방축골 마을 뒤(북쪽) 괴골 동편 골짜기.

선녀골 마을 동북쪽 골짜기.

송정리(松亭里) 하도문을 다르게 부르던 이름.

신문덕 하도문(下道門)과 중도문(中道門) 사이에 있는 얇은 고개.

양짓말 산기슭 밑 양지쪽에 있는 마을

설악동(雪嶽洞)

설악동과 관련하여 가장 빠른 기록인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승려들만이 거주 한 것으로 나와 있다.⁴⁸⁾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찰에는, 사찰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를 사찰 마을이라고 한다. 신흥사(新興寺) 부근에도 이런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14년 행정 구역의 개편으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합쳐져 도천면(道川面)으로 되었고, 도문면(道門面)이 있던 지역 중 설악산(雪嶽山) 부근에 장항리(獐項里)가 행정 지역으로 신설되었다.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장항리(獐項里)를 설악동으로 행정 구역이 개편되었으나 또 다시 1998년에 대포동과 설악동을 합쳐 대포동으로 통합하였다.

1. 관광지 일대

구단지 신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현재의 소공원 자리에 있었던 관광단지.

군량암(軍糧岩) 군량장(軍糧場)에 있는 큰 바위.

48) 《여지도서(輿地圖書) 양양 방리조》. “도문면, 신흥사 관문으로부터 서북 사이 40리 에 있고, 편호 20에 승 49명(道門面, 神興寺自官門西北間距四十里編戶二十僧四十九口)”

군량장(軍糧場) 정고평(丁庫坪)과 소공원 사이에 있는 별관. 비석 형태의 자연석에 군량장(軍糧場)이라고 새겨져 있음. 예전에 군인들이 양식을 저장하던 곳이다.

권금성(權金城) 소공원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해발 860m의 험준한 돌산에 있는 옛 성터(고적편 참조).

노루목 노루목 고개 일대(동쪽) 즉, 현재의 B지구 일대를 가리키던 땅이름. 노루목이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 장항(獐項)이라고도 불렀다. 옛날에는 이곳에 민가가 있어서, 설악동(雪嶽洞)의 옛이름인 장항리(獐項里)의 중심 마을을 이루었다.

노루목 고개 신단지 B지구에서 구단지로 넘어가는, 현재 파크 호텔 앞에 위치한 낮은 고개(산천편 참조).

도문교(道門橋) 쌍천(雙川)에 놓여 설악동(雪嶽洞) 주택 단지와 도문동(道門洞)을 연결하는 다리(교량편 참조).

망바위 정고평(丁庫坪), 무명 용사의 비(無名勇士의 碑) 뒷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 옛날에 도적들이 이 바위에서 망을 보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장사꾼이나 행인들의 물건을 털었다고 한다.

목우(牧牛)재 【모기재】 설악동과 노학동 척산리를 연결하는 높고 긴 고개(산천편 참조).

식당동(食堂洞) 비선대(飛仙臺) 윗 골짜기. 식당골이라고도 한다. 층을 이룬 반반한 바위들이 많이 있다.

식당바우 식당천(食堂川)에 있는 바위

쌍동암(雙童巖)⁴⁹⁾ 계조암(繼祖庵) 밑에 있는 바위. 두 아이가 길 양쪽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계조암(繼祖庵)의 문지기가 된다 함. 예전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하나가 남아있다.

와우암(臥牛巖) 흔들바위 밑에 있는 널따란 바위. 와우형(臥牛形)으로 되었다 하는데, 백여 명의 승려가 모여 앉아 공양하던 곳이라 한다.

안락암(安樂庵) 권금성(權金城)에 있는 암자.

청룡 장항리(獐項里)의 청룡 쪽에 있는 마을

49) 흔들바위를 말한다.

2. 능선 · 고개 · 길

공룡 능선(恐龍稜線) 마등령(馬登嶺)에서 희운각 대피소(喜雲閣待避所) 못 미쳐 바로 북쪽 신선암(神仙岩)까지의 바위 능선. 바위가 뾰족하여 마치 공룡(恐龍)의 등같이 생겼다. 나한봉(羅漢峰, 1275m), 노인봉(老人峰, 1184m)이 위치하고 있다.

마등령(馬登嶺) 내·외설악(內·外雪嶽)을 연결하는 고개 중의 하나(산천편 참조).

무너미 고개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과 가야동 계곡(伽倻洞溪谷)의 경계에 위치하여 내·외설악(內·外雪嶽)을 구분 지으며, 고개 바로 북쪽에 희운각 대피소(喜雲閣待避所)가 있다. 무너미의 무는 물에서, 너미는 넘는다(건넌다)에서 왔다. 물을 넘는다(건넌다)란 뜻의 무너미를 한자로 수유(水踰), 수월(水越)이라고도 표기하는데, 이 땅이름도 전국에 많이 분포한다.

범봉길 설악골에서 천화대(天花臺) 범봉으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북주 능선(北主稜線) 대청봉(大靑峰)에서 북쪽으로 마등령(馬登嶺), 저항령(低項嶺), 황철봉(黃鐵峰), 미시령(彌矢嶺), 신선봉(神仙峰)까지 이어지는 설악산(雪嶽山)의 북쪽 주능선(主稜線).

석주(石柱)길 설악골에서 천화대(天花臺)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동쪽으로 염라(閻羅)길, 흑범길이 있다.

염라(閻羅)길 설악골에서 천화대(天花臺)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동쪽에는 흑범길, 서쪽에는 석주(石柱)길이 있다.

저항령(低項嶺) 북주 능선(北主綾線)에 있는 고개 중의 하나. 동쪽으로는 정고평(丁庫坪)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길골(路洞)을 거쳐 백담사(百潭寺)에 이른다. 다른 말로 늘목령이라고도 하는데, 저항령(低項嶺), 늘목령 모두 노루목 고개, 목우(牧牛)재와 마찬가지로 길게 늘어진 고개라는 의미의 늘목, 늘목에서 유래하였다. 즉 늘목령은 늘목에 다시 고개 령(嶺)자가 합쳐져서 늘목령이 된 것이고, 저항령(低項嶺)은 늘목이 노루목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로 장항(獐項)이라고 표기하여, 거기에 다시 고개 령(嶺)자가 합쳐져서 장항령(獐項嶺)이라고 하던 것이, 발음상 저항령(低項嶺)으로 변하고, 이것을 의미와는 관계없이 한자로 저항령(低項嶺)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으로 볼 때 저항령(低項嶺)도 마등령(馬登嶺)처럼 옛날부터 이용된 길인 것을 알 수 있다.

함지덕 화채 능선(華彩綾線) 칠성봉(七星峰) 동쪽에 함지처럼 폭 파인 분지. 예전에는 화전민들이 살고 있었다.

화채 능선(華彩綾線) 대청봉(大靑峰)에서 시작하여 화채봉(華彩峰), 칠성봉(七星峰), 집선봉(集仙峰), 권금성(權金城)까지 이어진 능선. 일명 동북 능선(東北稜線)이라고도 한다.

화채 동능선(華彩東綾線) 화채봉(華彩峰)에서 동쪽으로 송암산(松岩山)까지 뻗어나간 능선.

흑범길 설악골에서 천화대(天花臺)로 올라가는 길 중의 하나. 서편으로 얀라(閻羅)길, 석주(石柱)길이 있다.

희운각 대피소(喜雲閣待避所)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과 가야동 계곡(伽倻洞溪谷)의 경계인 무너미 고개 바로 북쪽에 위치한 대피소. 1971년 한국산악회 최태묵(崔泰默)이 건립했다. 지금은 그 일대를 가리키는 땅이름이 됨. 동쪽으로는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서쪽으로는 가야동 계곡(伽倻洞溪谷), 남쪽으로는 대청봉(大靑峰), 북쪽으로는 공룡 능선(恐龍稜線)으로 갈라지는 교통의 요지이다.

3. 봉(峰)

나한봉(羅漢峰) 공룡 능선(恐龍稜線)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마등령(馬登嶺)과 1,275m봉 사이에 있음. 불교의 수호신인 나한(羅漢)에서 그 이름이 유래됨.

노인봉(老人峰) 공룡 능선(恐龍稜線)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해발 1,120m. 1,275m봉에서 희운각 대피소(喜雲閣待避所) 방향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봉우리. 여기서부터 북동쪽으로 뻗은 20개의 암봉을 천화대(天花臺)라고 한다.

노적봉(露積峰) 권금성(權金城) 바로 동쪽 봉우리. 토왕골과 소토왕골 중간에 있다. 모양이 곡식을 쌓아둔 형태임.

달마봉(達磨峰) 소공원 북쪽에 우뚝 솟은 높은 봉우리(산천편참조).

대청봉(大靑峰)⁵⁰⁾ 다른 말로 상청봉(上靑峰), 또는 청봉(靑峰)이라고도 하는 설악산(雪嶽山)의 주봉으로 해발 1,708m이다. 바로 밑(북서쪽)에 중청봉(中靑峰)이 있고, 그 밑(북쪽)에 소청봉(小靑峰)이 있다.

문수봉(文殊峰)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를 둘러싸고 있는 봉

50) 청봉(靑峰)이란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에는 “멀리서 보면 아득하게 푸른 옥색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으로 그 봉우리를 가리켜서 이름을 청봉(靑峰)이라고 하였다.(遠見只縹緲而靑故指其絕頂而名曰靑峰).”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 중의 하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옆에 문수 보살(文殊菩薩)과 보현 보살(普賢菩薩)이 위치하고 있다는 불교의 설명처럼, 석가봉(釋迦峯) 옆에 문수봉(文殊峯)과 보현봉(普賢峯)이 위치하고 있다. 일명 문주봉(文珠峯)이라고도 한다.

문필봉(文筆峰)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모양이 붓처럼 생긴 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미륵봉(彌勒峰) 비선대(飛仙臺) 바로 북쪽에 높이 우뚝 솟은 큰 돌산이다. 마치 미륵불(彌勒佛)처럼 우뚝 솟아 있어 이름 하였고, 장군의 형상이라고 하여 일명 장군봉(將軍峰)이라고도 한다. 중턱에 금강굴(金剛窟)이 있다.

범봉 천화대(天花臺)의 20여 개의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보현봉(普賢峰)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양 옆에 문수 보살(文殊菩薩)과 보현 보살(普賢菩薩)이 위치하고 있다는 불교의 설명처럼, 석가봉(釋迦峯) 양쪽에 문수봉(文殊峯)과 보현봉(普賢峯)이 위치하고 있다.

석가봉(釋迦峯)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불교의 설명대로 양 옆에 문수봉(文殊峯)과 보현봉(普賢峯)이 있다.

세존봉(世尊峰) 마등령(馬登嶺) 밑(동쪽) 금강문(金剛門) 바로

위(북동쪽)에 있는 봉우리.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존칭인 석가세존(釋迦世尊)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소청봉(小青峰) 대청봉(大靑峰) 바로 북서쪽에 있는 작은 청봉(靑峰).

왕관봉(王冠峰) 천화대(天花臺)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육형제봉(六兄弟峰) 양폭(陽瀑) 산장 뒤로 보이는 여섯 봉우리.

중청봉(中靑峰) 대청봉(大靑峰)과 소청봉 사이에 있는 청봉(靑峰).

진대봉 마등령(馬登嶺) 바로 북쪽에 있는 봉우리. 해발 1,327 m, 최근에 등산객들에 의하여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이전부터 주민들에 의하여 불린 땅이름인 것 같으나 요즘은 거의 부르지 않는다.

집선봉(集仙峰) 권금성(權金城) 바로 뒷쪽(남쪽)에 연이어 있는 암봉. 암봉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마치 신선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취적봉(翠滴峰)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칠성봉(七星峰) 화채 능선(華彩綾線)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로 해발 1,077m이다. 남쪽 화채봉(華彩峰)과 북쪽 집선봉(集仙峰) 중간에 있다.

칠형제봉(七兄弟峰) 공룡 능선(恐龍稜線) 신선암(神仙岩) 북쪽에서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을 향하여 용소골과 작은 바위골 사이로 뻗은 여러 개의 봉우리.

화채봉(華彩峰) 화채 능선(華彩稜線)의 대표적 봉우리.

황철봉(黃鐵峰) 북주 능선(北珠稜線)에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 남쪽으로는 저항령(低項嶺), 마등령(馬登嶺), 공룡 능선(恐龍稜線)으로, 북쪽으로는 미시령(彌矢嶺), 신선봉(神仙峰)으로 이어진다.

귀면암(鬼面岩)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우뚝 솟아 있는 큰 바위. 비선대(飛仙臺)와 양폭(陽瀑) 사이에 있다. 생김새가 무시무시한 귀신 얼굴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귀면암(鬼面岩)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귀면암(鬼面岩)이라는 이름은 근래에 붙여진 것이고, 옛날에는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의 입구에 버티고 서서 마치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 걸문다지 또는 걸문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금강굴(金剛窟) 비선대(飛仙臺) 뒤 미륵봉(彌勒峰) 중턱에 뚫려 있는 길이 18m의 자연 석굴. 일찍이 원효 대사(元曉大師)가 이곳에서 수도했었다고 전해 온다. 이전에도 불을 땀던 구들의 흔적과 불상 등의 유물이 있었고, 요즘에는 신흥사(新興寺)의 부속 암자로 되어서 새 불상을 모셔 놓았다.

금강문(金剛門) 마등령(馬登嶺)에서 비선대(飛仙臺) 쪽으로 20분 정도 걸어 내려오면 있는데, 바위가 길 양쪽에 문기둥처럼

서 있다.

만경대(萬景臺) 화채봉(花彩峰)에서 양폭(陽瀑)으로 내려오는 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좁고 높은 지대. 주위 전망이 좋아 많은 경관을 볼 수 있으므로 만경대(萬景臺)라고 하며, 또는 많은 경관을 바라 볼 수 있다고 하여 망경대(望景臺)라고도 한다.

망군대(望軍臺) 권금성(權金城) 북쪽의 높은 암봉. 옛날에 성을 지키던 군인들이 망을 보던 곳이라고 하여 망군대(望軍臺)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는 봉화를 올려 신호를 하던 곳이라고 하여 봉화대(烽火臺)라고도 한다.

목탁 바위 계조암(繼祖庵)이 위치한 자연 석굴을 형성한 바위. 달마봉(達磨峰)에서 내려다보면 계조암(繼祖庵) 석굴이 목탁처럼 보인다고 한다. 계조암(繼祖庵)은 조사(祖師)들이 계속하여 배출된 암자라는 뜻인데, 목탁 속에서 수도하기 때문에 쉽게 득도하게 된다고 한다.

비선대(飛仙臺) 소공원에서 남서쪽으로 2.3km지점에 위치한 거대한 암반(고적편 참조).

4. 골짜기

가는골 정고평(丁庫坪)에서 비선대(飛仙臺) 쪽으로 약간 가다가 남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권금성(權金城) 뒤 집선봉(集仙峰)까지 이어진다.

내원(內院)골 신흥사(新興寺)에서 내원암(內院庵) 쪽(서북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문(門) 바위골 저항령 계곡(低項嶺溪谷) 중간에서 황철봉(黃鐵峰) 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설악(雪嶽)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비선대(飛仙臺)를 지나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토막골 다음에 나타나는 골짜기. 공룡 능선(恐龍稜線)까지 이어진다.

소토왕(小土王)골 소공원에서 비룡교(飛龍橋)를 건너서 바로 남쪽으로 나타나는 골짜기. 토왕골의 바로 서편 골짜기로서 그 사이에 노적봉(露積峰)이 있다. 일명 은당골, 무당골이라고도 한다.

식은골 정고평(丁庫坪)에서 남동쪽으로 권금성(權金城)까지 뻗은 골짜기.

염주(念珠)골 음 폭포(陰瀑布)에서 남쪽으로 염주 폭포(念珠瀑布)를 거쳐 화채 능선(華彩綾線)까지 뻗은 골짜기. 서편으로 죽

음의 계곡이 있다. 골짜기 중간에 염주 폭포(念珠瀑布)가 있으므로 염주골이라고 하며, 또 입구에 음 폭포(陰瀑布)가 있으므로 음폭골이라고도 한다.

용소(龍沼)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귀면암(鬼面岩)을 지나 오련 폭포(五連瀑布) 못미처서 오른편(서쪽)으로 들어간 골짜기. 신선암(神仙岩) 부근까지 뻗었다.

жат은 바위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비선대(飛仙臺)를 지나서 귀면암(鬼面岩)을 향해 가다 오른편(서쪽)으로 토막골, 설악골 다음에 나오는 골짜기.

죽음의 계곡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맨 끝 골짜기. 대청봉(大靑峰)에서 희운각 대피소(喜雲閣待避所)으로 직접 내려오는 능선길 바로 동편 골짜기. 1969년 한국산악회원 10 동지가 해외 원정을 위한 훈련을 하다가 조난당한 곳이다. 1956년 8월 한국산악회원 전감(田堪)이 처음 등반하였으며, 아직 뚜렷한 등반로는 없다.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비선대(飛仙臺)에서 대청봉(大靑峰)에 이르는 설악산(雪嶽山)의 가장 대표적인 골짜기. 협곡을 이룬 계곡 양쪽의 기암 괴봉들이 마치 천불(千佛)이 짝 들어차 있는 듯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설악을 대표하는 절경들이 거의 이 골짜기에 밀집되어 있다. 비선대(飛仙臺)에서 대청봉(大靑峰)으로 올라가면서 오른편(서쪽)으로 토막골, 설악골, жат은 바위골, 용소(龍沼)골, 왼편(동쪽)으로 칠선골, 염주(念珠)골, 죽음의 계곡이 갈라진다.

칠선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귀면암(鬼面岩)에서 양폭(陽瀑)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오련 폭포(五連瀑布) 못미처 왼편(동남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구만물상(舊萬物相)골 이라고도 한다.

토막골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골짜기 중의 하나. 비선대(飛仙臺)를 지나서 오른편으로 갈라진 골짜기.

토왕(土王)골 소공원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 육담 폭포(六潭瀑布), 비룡 폭포(飛龍瀑布),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가 위치하고 있다.

핏골 신단지 C지구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

5. 폭포(瀑布) · 담(潭)

건 폭포(乾瀑布) 죽음의 계곡에 있는 폭포.

문수담(文殊潭) 비선대(飛仙臺)와 귀면암(鬼面岩) 사이에 있다. 문수 보살(文殊菩薩)이 목욕을 한 곳이라고 하며, 일명 문주담(文珠潭)이라고도 한다.

비룡 폭포(飛龍瀑布) 토왕골에 있는 폭포. 육담 폭포(六潭瀑布)와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폭포수의 모양이 마치 용이 하늘로 날아 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양 폭포(陽瀑布)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폭포 중의 하나. 밑의 오련 폭포(五連瀑布)와 바로 위의 천당 폭포(天堂瀑布) 중간에 있다. 음 폭포(陰瀑布)와 이웃하여 있는데, 양 폭포(陽瀑布)는 겉에 있으므로 양 폭포(陽瀑布)이고, 음 폭포(陰瀑布)는 음폭(陰瀑)골에 들어가서 속에 있으므로 음 폭포(陰瀑布)이다. 현재는 양 폭포(陽瀑布)라는 말보다 양 폭포(陽瀑布)를 줄여서 부르는 양폭(陽瀑)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고, 또 양폭(陽瀑)이라는 말은 폭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가리키는 말로 변화되었다.

염주 폭포(念珠瀑布) 염주(念珠)골에 있는 폭포. 음 폭포(陰瀑布)에서 골짜기로 더 들어가서 위치하고 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염주(念珠)같다고 하여 염주 폭포(念珠瀑布), 염주(念珠)폭이라고 한다.

오련 폭포(五連瀑布)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에 있는 폭포 중의 하나. 귀면암(鬼面岩)과 양 폭포(陽瀑布) 사이에 있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협곡 사이에 5개의 폭포가 연이어 떨어지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전에는 폭포 일대의 암벽을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앞문의 수문장 같다고 하여 앞문다지라고 하였다.

육담 폭포(六潭瀑布) 토왕골에 있는 폭포 중의 하나. 소공원에서 비룡 폭포(飛龍瀑布)로 가는 길 중간에 있다. 암벽으로 된 협곡에 6개의 폭포와 담소(潭沼)가 연달아 있어서 절경을 이룬다. 폭포 위에 구름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음 폭포(陰瀑布) 【음폭, 陰瀑】 음폭(陰瀑)골 입구에 있는 폭포. 양 폭포(陽瀑布)와 이웃하여 있는데, 양 폭포(陽瀑布)는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곁에 있으므로 양 폭포(陽瀑布)이고, 음 폭포(陰瀑布)는 음폭골 속에 있으므로 음 폭포(陰瀑布)라고 명명되었다.

이호담(二壺潭) 문수담(文殊潭)과 귀면암(鬼面岩) 사이에 있는 담(潭). 배가 불룩한 병 모양의 아담한 담(潭)이 2개가 있어 이호담(二壺潭)이라고 한다.

천당 폭포(天堂瀑布)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양 폭포(陽瀑布) 바로 위에 있는 폭포. 위태롭게 석벽에 설치한 철 계단을 오르면서 천당 폭포(天堂瀑布)를 바라보면 천당(天堂)에라도 온 듯한 느낌이 든다.

칠선 폭포(七仙瀑布) 칠선골에 있는 폭포.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 토왕골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외설악을 대표하는 폭포로 겨울철에는 빙벽훈련장으로 산악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토왕성(土王城)이란 이름은 오행설에서 유래된 것 같다. 그 의미는 토기(土氣)가 왕성하므로 기암괴봉이 발달하여, 마치 폭포를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다(고적편 참조).

6. 장재터

속초시(束草市)와 양양군(襄陽郡)의 경계인 쌍천(雙川) 건너편이므로, 본래 양양군(襄陽郡) 강현면(降峴面) 상북 2리(上福二里)에 속해 있었으나, 198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단지 C 지구인 핏골과 함께 속초시(束草市) 설악동에 속하게 되었다. 마을 서쪽에 장자, 즉 부자가 살던 터가 있는 까닭으로 장재터라 불린다.

군개도랑 마을 바로 앞(북쪽)에 있는 작은 냇가. 군더더기, 쓸데없는 깃가라는 의미의 군개에 도랑이 합쳐진 것이다.

마무골 마을 서남쪽 골짜기. 말을 묶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맷돌바위 물안골 입구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맷돌처럼 생겼다.

물안골 마무골 서쪽 골짜기,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방아골이라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복교(上福橋) 장재터와 상도문리(上道門里) 2구를 연결하는 쌍천(雙川)에 놓인 다리.(교량편 참조)

아랫고개 장재터에서 상복리(上福里)로 넘어가는 고개로 장재터와 상복리의 경계가 된다. 여기서 상복리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윗고개가 있다.

장재평 장재터 벌판을 부르는 이름.

대포동(大浦洞)

대포(大浦)의 ‘포(浦)’는 그 훈(訓)이 개(浦)이니, 옛 사람들은 큰 개라고 하던 것이 한자로 대포(大浦)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한다.⁵¹⁾ 대포리(大浦里)에 관한 기록은 《여지도서》를 비롯⁵²⁾ 하여 《강원도읍지》, 《관동읍지》, 《관동지》, 《양양부읍지》 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록을 볼 때 대포리(大浦里)는 조선 시대 내내 행정지역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만 인구가 감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1918년에 편찬된 《최신조선지리》에는 내용진과 외용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진은 오늘날 대포동을 외용진은 현재 외용치(外瓮峙)를 지칭한다.

1966년 동계 실시 때 대포리에 외용치리, 내물치리를 합하여 대포동이라 하였고,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는 합쳐져 도문동으로, 그리고 장항리(獐項里)는 설악동으로 행정 구역을 개편하였다. 1998년 또 다시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을 합쳐 대포동으로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51) 대포는 속초(束草)에서 양양(襄陽)의 물치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 일대로 쌍천 하구의 큰 개를 말하는데, 큰 개(浦), 갯가라는 뜻의 한 개를 한자로 대포(大浦)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되었다.

51) 《여지도서(輿地圖書) 양양 방리조》. “대포리(大浦里) 관문으로부터 북쪽 25 리에 있다. 편호 34 남 35구 여 69구(大浦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四男三十五口女六十九口)”

1. 대포리(大浦里)

나무고개 대포리(大浦里)에서 중도문리(中道門里)로 넘어가는 고개(산천편 참조).

대포꼬댕이 대포 고개 끝에 있는 마을.

대포장 대포에서 서는 장. 1, 6일에 서는데 해산물이 거래된다.

독재 밭뚝재

밭뚝재 대포 고갯길 7번 국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포에서 속초(束草)로 갈 때 고갯길을 통해 현재의 외瓮치(外瓮峙)로 가게 된다. 이 고갯길 옆에 밭뚝이 다닥다닥 층계 모양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밭뚝재라 하였다. 그러던 것이 밭음상의 변화로 독재라 부르게 되었다.

마산재 대포 북쪽에 있는 솟아 있는 산. 산 위에 옛 성터가 있고 말을 키우고 관리하던 곳이 있기 때문에 마성대(馬城臺)라 한다.

방축(防築) 대포(大浦) 서쪽에 있는 저수지.

병풍바위 예전 대포 재건학교 뒤(북서쪽)에 있는 큰 바위. 다른 말로 화랑탑이라고도 한다.

산두꾸미 대포(大浦)에서 남쪽 물치(勿淄) 쪽으로 가는 길 옆

에 있는 마을. 도깨비가 출현했다고 하여 산도깨비라고 하던 것이 산두꾸미로 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밭뒤꿈치에서 사용되는 ‘뒤꿈’이 산과 결합하여 산뒤꿈이라고 하던 것이 산두꾸미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쇠팽이골 대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쇠평골 또는 철평(鐵坪)이라고 함. 요즘 이것을 잘못 말해 회평골이라고도 한다.

숫돌바위 대포 동쪽 측향 너머에 있는 바위. 숫돌처럼 생겼다.

아랫말 대포 나룻가에 있는 마을.

웃말 대포초등학교 쪽에 있는 마을

잔다리골 대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제집골 대포고개 밑에 있는 마을. 기와집이 있어 사투리로지와집골이라고 하던 것이 제집골로 변함.

진등 청룡(靑龍) 서북쪽에 있는 긴 산등성이.

청룡(靑龍) 대포의 청룡이 되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

큰골 대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요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큰말기 대포 서쪽 철길 너머에 있는 들.

2. 웅진리 【외옹치리, 外甕峙里】

조선 시대부터 면, 리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그때 외옹치(外甕峙)의 행정지역 이름은 독 나루터라는 뜻의 한자 표기 방식으로 웅진(翁津)이었다. 이후 편찬된 지리서에서도 편호나 인구수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은 볼 수 있으나 행정 땅이름은 변함없이 웅진리(翁津里)라고 기록하고 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 111호로 지방제도의 개혁에 따라 도천면(道川面)으로 통합되었고 여전히 행정구역으로 웅진리(翁津里)로 기록되어 있으며, 1918년 발간된 《최신조선지리》에서는 내용진, 외옹진리로 기록되어 있다. 내용진은 오늘날 대포리, 외옹진은 외옹치(外甕峙)로 추정된다.

대포 고갯길 7번 국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포에서 속초(束草)로 갈 때 고갯길을 통해 현재의 외옹치(外甕峙)로 가게 된다. 이 고갯길 옆에 밭둑이 다닥다닥 층계 모양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밭둑재라 하였다. 그러던 것이 발음상의 변화로 독재라 불렀고, 그 결과 《면세일반》(1926) 이후부터 웅진(翁津)이라는 땅이름 대신 바깥독재라는 뜻의 한자 표기인 외옹치리(外甕峙里)라는 행정 구역이 오늘날까지 땅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옹치리는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대포동에 통합되었다.

굴바위 마작말 동쪽 해변에 있는 바위인데, 굴이 있어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투전을 하기도 했으므로 투전굴이라고도 한다.

기른네미 외옹치(外甕峙) 새마을 쪽에서 대포 고개로 빠지는 길목 일대를 가리키는 말.

다리슴 마작말 동쪽 해변에 섬처럼 외따로 솟아 있는 큰 바위. 나무다리로 건너갈 수 있는 섬이란 뜻으로 다리섬이라고 하던 것이 다리슴으로 변화하였다.

덕대바우【德大岩】 외옹치(外瓮峙)에서 대포로 가는 해변가에 있는 큰 바위. 바위에 빌면 덕이 생긴다(복을 받는 바위)고 하였다. 한자로 덕대암(德大岩)이라고도 한다.

덕산(德山) 봉수터(산천편 참조).

마당바우【場岩】 봉끝 밑(동쪽) 해변 가에 있는 바위. 마당처럼 편평함. 한자로 장암(場岩)이라고도 한다.

마작말 새작말과 산등성이를 경계로 하여 남쪽을 향한 마을. 마작은 마작이 변한 것인데, 마작은 뱃사람들의 말로 남쪽을 뜻한다. 현재는 풍랑으로 마을이 없어지고 북쪽 새마을로 집단 이주했다.

봉수터(봉화터) 조선 시대 덕산 봉수(德山烽燧)가 있었던 터.

새마을 마작말이 풍랑으로 폐허가 되자 주민들이 새작말 북쪽에 집단 이주하여 새로 건설된 마을.

새작말 마작말과 산등성이를 경계로 하여 동쪽을 향해 조성된 마을. 새작은 새작이 변한 것인데, 새작은 뱃사람들의 말로 동쪽을 뜻한다.

약수터 외옹치(外瓮峙)에서 대포로 가는 해변 길 중간에 있음. 바위틈에서 샘물이 솟아 나온다.

오리바위 외옹치에서 대포 쪽으로 가는 해변가에 있는 바위. 오리가 자주 와서 앉는다고 한다.

일곱매끼 조양동(朝陽洞) 새마을 쪽으로 향하는 마을 입구의 논이 있는 일대를 일컫는 말.

장승거리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 있는 일대.

지네바위 다리슴과 굴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 지네처럼 생겼다.

해구(海狗)바위 마당바위 북쪽 해변가에 있는 바위. 해구(물개)들이 자주 와서 앉았다.

3. 내물치(內勿淄里)

현재 속초와 양양군의 경계인 쌍천(雙川)을 중심으로 양양 쪽에는 강선면 물치진리(沕淄津里)가, 속초 쪽으로는 도문면(道門面) 물치리(勿淄里)가 각각 행정지역으로 되어 있다. 강선면의 경우 《관동지》, 《강원도읍지》, 《양양부읍지》 등에도 물치진리(沕淄津里)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기록부터는 물치리(沕淄里)로 되어 있다.

반면에 도문면의 물치리는 《관동지》, 《강원도읍지》, 《양양부읍지》 등의 기록은 편호와 인구수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든 흔적은 볼 수 있으나 행정지역 개편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후인 1914년 3월 1일부터 행정지역 개편으로 인해 강선면에는 물치리, 도문면(道門面)은 도천면(道川面)으로 합쳐져 도천면(道川面)에는 내물치리라 기록하고 있다.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내물치리는 대포동에 통합되었다.

가래고지바위 둥글바위와 섬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 바다에 사는 오리 종류인 가마우지가 잘 와서 앉는다고 함. 지역사람들의 사투리로 가래고지라 한다.

계바위 마당바위와 둥글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 바위 밑에 계가 많다.

군개 마을 남쪽으로 쌍천(雙川) 못미처 있는 작은 시내. 쓸데 없는 군더더기 개(시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귀신바위 마을 북쪽 대포와의 경계 지대에 있는 바위. 예전에

귀신이 나왔었다고 한다.

등글바위 개바위와 가래고지바위 사이에 있는 등글고 큰 바위.

마당바위 귀신바위와 개바위 사이에 있는 마당처럼 넓고 평평한 바위. 해구(海狗)가 와서 잠을 잤다고 한다.

선바위 가래고지바위 남쪽에 선돌처럼 우뚝 솟은 바위. 사람이 서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이름하였다.

쌍천(雙川) 설악산(雪嶽山)에서 발원하여 도문동을 거쳐 물치에서 동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산천편 참조).

쌍천교(雙川橋) 쌍천(雙川) 하류에 놓여 내물치리와 양양(襄陽) 강현면 물치리(沕淄里)를 연결하는 다리. 일명 큰다리라고도 한다(교량편 참조).

안가산 마을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

옹구점마을 옹기(甕器)를 팔던 점이 있었던 마을로 현재 관광안내소 옆 군부대 자리에 있었다.

유물재비(俞勿齋碑) 조선(朝鮮) 후기에 이 고장에 거주한 유명한 학자 물재(勿齋) 유희일(俞晦一)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고적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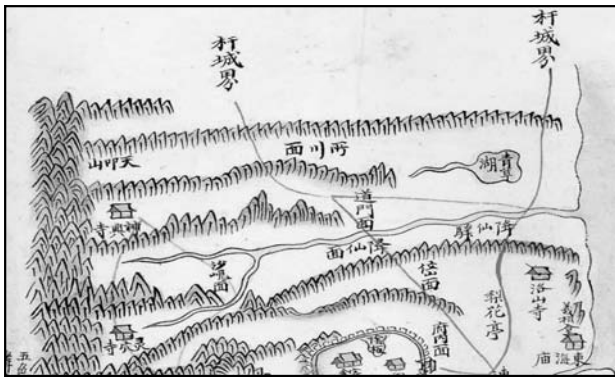
조짐이 등글바위 앞(동쪽)에 있는 바위.

흙다리 쌍천교(雙川橋)에서 약간 서쪽에 놓여졌던 다리. 지금은 없어졌다. 나무로 만들어 위에 흙을 덮었으므로 흙다리라고 했다.

2. 소천면(所川面)⁵³⁾

소천(所川)이라는 이름은 ‘내(川)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 냇가이다. 이것을 한자로 옮긴 것이 소천이고, 일제 시대에 들어와 그 좌우의 평야 지대를 소천면(所川面)의 평야인 소야평(所也坪)이라 기록하였다.⁵⁴⁾ 천의 이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골내였고, 한자로 옮겨 노동천(蘆洞川)이다. 이것은 일제 시대에 가장 먼저 기록된 《조선지리지》를 근거한 것이다.

이것이 1926년 《면세일반》에 오면 ‘소야평(所野坪)’으로 기록되고, 1959년에 만들어진 《읍세일람》에 소야천(所野川)이라는 천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왓들우’라고 불리던 것이 일본인들에 의해 한자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소야(所野)로 되었기 때문이다.



해동지도(18세기 중엽, 정조 년(1776) 이전) 속의 소천면(所川面)

53) 조선 시대의 소천면 지역은 논산리(論山里), 부월리(扶月里), 속초리(束草里), 속진리(束津里)였다.

54) 용어의 정리에서도 밝혔듯이 소야평은 1912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리지》 양양군편에 소야평(所也坪)으로 기록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우리말 ‘왓들우’를 한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소천면(所川面)의 뜰’로 기록된 것이다. 이것이 《면세일반(1926)》에 가면 소야(所野)로 바뀐 것이다.

조양동(朝陽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부월리(扶月里), 온정리(溫井里), 논산리(論山里), 청대리(靑垔里)를 합쳐서 조양동(朝陽洞)이라고 명명하였다. 조양(朝陽)이란 땅이름은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받는 곳’이라는 뜻이다.

1. 부월리(扶月里)

조양동(朝陽洞)의 중심 마을이다. 현재는 ‘도울 부(扶)’자를 써서 부월(扶月)로 되어 있으나, 그것으로는 이름 유래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전에는 ‘뜰 부(浮)’자를 쓴 것이 그 후 ‘도울 부(扶)’자로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부월(浮月)은 물 위에 뜬 달이 된다.

청초호(靑草湖)에도 달이 비쳐 마치 물 위에 뜬 것 같다고 하여 부월(浮月)로 명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지도서》에는 부월포리(扶月浦里)로, 그 후 읍지(邑誌)에서부터는 부월리(扶月里)로 기록하고 있다.

반부득【반부평, 半扶坪】 부월리(扶月里) 앞에 있는 뜰. 청초호(靑草湖)를 끼고 있어 반은 호수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반부들이라고 하던 것이 반부득으로 변하였다. 반월형이라고도 하며 주위에 반부득 주막(半扶坪酒幕)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

나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새마을 부월리(扶月里) 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

연개 부월리(扶月里) 안쪽, 현재 조양초등학교 쪽에 있는 마을.
이전에 큰 연못이 있어 연못개라고 하던 것이 연개로 변화되었다.

2. 온정리(溫井里)

행정상 부월리(扶月里)에 속하고 있던 마을인데, 수복 후 인구 증가로 부월리(扶月里)에서 분리되어 온정리(溫井里)가 되었다. 마을 중간에 더운 우물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므로 이 마을을 더운 우물, 또는 한자로 온정(溫井)이라고 한 것이다. 한편 부월리(扶月里)에 속해 있을 때 부월리(扶月里)는 바깥이고 온정리(溫井里)는 안 쪽이므로 안말이라고도 했다.

가래터 마을 서쪽 골짜기

떡밭 마을 남쪽 골짜기

산지랑골 마을 남서쪽 골짜기. 산신령께 산신제를 지내던 산제당(산제당)이 있어 산제당골이라고 하던 것이 산지랑골을 거쳐 산지랑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숫개 마을 입구의 논. 습기가 많은 논 지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중밭 마을 남동쪽 골짜기

3. 논산리(論山里)

논산이란 마을 이름은 이곳의 지형이 논 가운데 산이므로 우리말로 논피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논산(論山)이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한다. 논피를 현지에서는 논미로 발음한다.

갯가(갯마을) 논산리 북서쪽 청초호(靑草湖) 갯가에 새로 조성된 마을.

떡밭재(떡고개) 논산리에서 중도문리(中道門里)로 넘어가는 고개(산천편 참조).

떡장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서 현재 대원마트 부근 마을이 있는 곳이다.

범바위 범박골에 있는 바위.

범박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부무골 마을 남쪽 떡밭재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신재나무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아랫등지골 마을 남쪽 떡밭재로 가다가 부무골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아랫샘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웃등지골 마을 남쪽 떡밭재로 가다가 아랫 등지골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윗샘골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작은 함지고개 마을 안 서편에 있는 조그마한 고개. 이전에 함정이 파여 있었다고 한다.

장자목개 작은 함지고개에서 바로 북쪽으로 이어진 작은 구릉.

재뿔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호랑이가 잡힌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조선독골 마을 남쪽 떡밭재로 가다가 왼쪽으로 갈라진 고개.

큰 떡밭재(큰 떡고개) 논산리에서 중도문리 1구로 넘어 가는 고개.

큰 함지고개 마을 서쪽에 있는 고개. 이전에 짐승을 잡기 위하여 큰 함정을 파놓은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4. 청대리(靑垔里)

논산리(論山里)에 속하다가, 1954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 이양될 때 인구 증가로 행정상 논산리에서 분리 독립되어 청대리(靑垔里)로 불렸다. 마을 뒤(남쪽)에 청대산(靑垔山)이 있어서 청대산(靑垔山) 밑이 되므로 청대리라고 하였다. 원래는 ‘청대(靑岱)’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청대(靑垔)’라고 쓰기 시작하여 지금은 모두 청대(靑垔)라고만 쓴다.

가시나무골 마을 뒤(남쪽) 할미골과 황새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 가시나무가 많다.

덤박골 마을 뒤(남쪽) 큰골과 할미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현재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두루봉 청대산 서쪽 봉우리. 산봉우리가 둥그스름하게 생겨서 두루봉이라고 부른다.

매자 마을 한가운데를 일컫는 말. 마을과 큰골 사이에 약 300년 정도 된 단양(丹陽) 장씨(張氏) 조상묘인 큰 봉분이 있는데, 풍수지리상 반복치형(半伏雉形)이라고 한다. 매가 꿩(雉)을 잡는 새임을 고려하면 매자라는 땅이름이 관련이 있는 듯하다.

범바위 산지당골에 있는 바위. 예전에 바위 밑 굴에서 범이 새끼를 쳤다고 한다.

산지당골 현재 속초상고(束草商高)가 들어선 골짜기. 이전에

산제사를 지내던 산신당, 산제당이 있어서 산제당골이라고 하던 것이 산지당골로 변화되었다.

연화동 마을 서쪽 할미골 입구를 말하는데, 풍수지리상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명당이 있다고 하여 연화동(蓮花洞)이라고 한다.

작은골 큰골에서 왼쪽으로 갈라진 작은 골짜기.

장사바위 큰골에 위치한 바위.

청대산(靑垔山) 마을 남쪽 증도문리와의 경계에 있는 산.

큰골 마을 뒤(남쪽) 청대산(靑垔山)으로 향한 큰 골짜기. 동편은 산지당골이고 서편은 덩박골이다.

할미골 마을 뒤(남쪽) 덩박골과 가시나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황새동 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교동(校洞)

1. 교동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6구가 청학동(靑鶴洞)과 교동(校洞)으로 분리되었다. 보통 향교(鄕校)가 있었던 마을을 교동이라고 하나, 속초(束草)는 옛 고을 중심지가 아니어서 향교가 없었으므로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 속초중학교(束草中學校)가 위치했었기 때문에 교동(校洞)으로 명명했다고 한다.

만천동(萬千洞, 萬泉洞) 교동(校洞) 천주교회 부근을 일컫던 옛 땅이름으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땅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의 숫자가 만천호(萬千戶)가 된다는 뜻으로 지었다는 설명과, 또는 만석꾼이 살았다거나 만천(萬泉)이란 아주 좋은 샘물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설명이 있다.

청초교(靑草橋) 청초천(靑草川)하류에 놓여 교동(校洞)과 조양동(朝陽洞)을 연결하는 다리(교량편 참조).

청초호(靑草湖) 논피호, 쌍성호(雙成湖), 진성호(震成湖)라고도 함(산천편 참조).

샘치골⁵⁵⁾ 현 속초중학교자리에서 속초교육청 건물 뒤로 미시령(彌矢嶺)으로 뚫린 국도가 있다. 그곳 언덕길을 오르면 고개

언덕 바른편에 국민은행연수원이 나오고 그 북쪽 산골짜기를 샘치골이라고 하는데, 논농사를 경작할 때 천수답들이라 맨 위쪽 논이 샘물로 논물을 받고 난 다음 차례로 논물을 대고 그런 순서로 샘물을 나누어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이 심할 때는 논물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언쟁이 발생하여 밤을 새우며 논물을 가두던 골짜기였다. 샘물을 꼭대기부터 차례로 대던 곳이라서 샘치골이라 불렀다.

55) 김정우, 앞의 책, 68쪽 참조.

2. 청학동(靑鶴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6구를 둘로 나누어 한쪽을 청학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청학동이란 이름은 청초호(靑草湖)가 너무 맑아 지나가던 학들이 갈대밭에서 쉬고 갔다하여 붙여진 동명이다.

청학시장(육구시장) 속초리(束草里) 6구에 위치한 시장이므로 6구시장이라고 하다가, 6구가 청학동(靑鶴洞)으로 바뀐에 따라 청학시장(靑鶴市場)이라고 불린다.

노학동(蘆鶴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 신흥리(新興里)를 합쳐서 노학동(蘆鶴洞)이라고 명명하였다. 노학이란 이름은 노리(蘆里)의 ‘노(蘆)’자와 척산리(尺山里) 학사평(鶴沙坪)의 ‘학(鶴)’자를 딴 것이다.

조선 후기 읍지(邑誌)에는 현재의 노학동(蘆鶴洞) 지역에는 행정상 동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 행정상 논산리(論山里)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사람들의 거주가 늘어, 일제 시대부터 행정상 노리(蘆里)가 신설되었고, 습지대의 개발로 더욱 더 인구가 늘어, 1942년 속초면(束草面)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될 때, 노리(蘆里)는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의 4동리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1962년 타도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뒷버덩으로 집단 이주해 와서 신흥리(新興里)가 신설되었으나, 얼마 안 되서 1963년 속초시(束草市)로 승격되고, 1966년 동(洞)제가 실시됨에 따라, 종래의 노리(蘆里) 지역이 모두 합쳐져서 노학동(蘆鶴洞)으로 명명되었다. 관광 개발에 따라 최근에 크게 발전하고 있다.

1. 노리(蘆里)

노학동(蘆鶴洞)의 중심 마을이며, 갈골, 노동(蘆洞), 노동리(蘆洞里)라고도 했다. 현재 논으로 조성되어 있는 앞버덩 일대가 이전에는 습지대여서 갈대가 많았으므로 갈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노동(蘆洞), 노동리(蘆洞里), 노리(蘆里)라고 한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뒷버덩 노리(蘆里), 척산리(尺山里), 신흥리(新興里)에 걸쳐 있는 넓은 버덩. 신흥리는 뒷버덩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노학동의 중심 마을이었던 노리(蘆里)에서 볼 때, 마을 뒤(북서쪽)에 위치한 버덩이므로 뒷버덩이라 했다. 한자로 표기하여 후평(後坪)이라고도 한다.

앞버덩 노리, 도리원리 마을 앞(남쪽)에 있는 넓은 들. 모두 논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습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넓이 390여 정보, 한 해에 3,600석이 생산된다고 한다. 일제 시대부터 소야(所野)평야라고도 했다.

청초천(靑草川) 설악산(雪嶽山) 달마봉(達磨峰)에서 시작되어 노학동을 거쳐 청초호(靑草湖)로 유입되는 하천(산천편 참조).

2. 응골

노리(蘆里)에서 청초천(靑草川) 건너편 산기슭 마을이며, 전통적으로 노리(蘆里)에 속했다. 응골을 한자로 표기하여 응곡(應谷), 응동(應洞)이라고도 한다. 마을이 청대산(靑臺山), 두루봉 등 앞(남쪽)산에 가려서 응달 골짜기 지역이 되므로 응골이라고 하였다.

맷돌바위 맷돌바위골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맷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형상이다.

맷돌바위골 마을 뒤(남쪽)에 있는 골짜기. 맷돌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부엉이 바위 부엉이 바위골에 있는 바위. 바위 틈새에 부엉이 집이 있다.

부엉이 바위골 마을 뒤(남쪽), 맷돌바위골 서편에 있는 골짜기. 부엉이 바위가 있으므로 이름이 유래되었다.

사당골 제사를 지내던 사당(祀堂)이 있었기 때문이다.

3. 도리원리(桃李源里)

노학동(蘆鶴洞) 지역 동북쪽 언덕 지대에 위치한 마을. 한자로는 도리원(桃里源)으로 표기하나, 구전으로는 되린덕이라고 부른다. 복숭아 나무가 많아서 도리원(桃里源)이라고 하였다 한다. 실제로 마을에는 과거에 복숭아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복숭아 도(桃)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오얏 리(李)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위의 설명은 도리원(桃里源)이라는 한자 표기에 의거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설명인 것 같다. 그것보다는 도리원(桃里源)이 인구가 적어 노리(蘆里)에 속할 때, 노리(蘆里) 마을 뒤 안쪽 둔덕이므로 뒤안 둔덕, 뒤안덕, 뒤란덕이라고 하던 것이 되린덕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로 유래와는 관계없이 발음이 비슷한 도리원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도리원을 속칭으로는 되린덕이라고 한다.

가운데 쇠골 마을 북쪽 골짜기.

뒷꼬댕이 마을 뒤(북쪽) 높은 지대.

사지난골 마을 뒤(북서쪽) 골짜기.

아래 쇠골 마을 동북쪽 골짜기.

여우바위 사지난골에 있는 바위. 바위 틈새 굴에 여우가 살았다고 한다.

윗 쇠골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4. 이목리(梨木里)

노리(蘆里) 북쪽 골짜기 마을. 돌배나무골이란 골짜기가 지금도 있듯이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이목동(梨木洞), 이동(梨洞), 이목리(梨木里)라고 표기한 것이다.

도장생이 마을 제일 끝(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돌배나무골 마을 입구에서 왼편(서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동우(東宇)대학 뒷편에 해당된다. 이전에는 돌배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무박골 마을 북동쪽 골짜기.

밭버덩 마을 입구 왼쪽의 버덩. 바깥버덩이 줄어서 밭버덩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샘골천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시내. 1972년 제방 축조 공사 때, 당시 강원도지사(江原道知事) 박경원이 샘에서 나오는 물이므로 깨끗하다고 하여 샘골천이라고 명명하였다.

서낭골 마을 북쪽 골짜기.

서낭봉 서낭골에 있는 봉우리. 서낭당이 있다.

아랫 골짜 마을 아래(남쪽)에 있는 골짜기.

장자골(장재골) 마을 북쪽 골짜기. 토지가 비옥하여 벼농사가 잘 되므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장자골이란 이름이 붙었다. 일명 장재골이라고도 부른다.

큰말사니 마을 뒤(북쪽) 큰 골짜기.

화전(花煎)바위 큰말사니에 있었던 바위. 근래에 마을 앞 샘골 친 제방 축조 공사 때 화전바위를 깨어서 제방 석축에 썼으므로 지금은 바닥만 남아 있다. 원래 바위가 넓고 평평해서 예전에 이 바위에서 화전(花煎) 놀이를 한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5. 척산리(尺山里)

마을 뒷(남쪽)산이 마치 곡척(曲尺)이라는 둥근 자와 같이 생겼으므로 그 산을 척산(尺山)이라 하고 거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가마소(沼) 마을 서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 입구에 있는 소(沼). 소의 모양이 가마솥처럼 생겼다하여 현지 발음으로 가매소라고 불리었다.

가마소 개울 마을 서쪽 학사평(鶴沙坪)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 마을 입구에서 목우(牧牛)재 개울과 합쳐 청초천(靑草川)을 형성한다.

노적(露積)바위 암지동 입구에 있는 바위. 모양이 노적가리를 쌓아 놓은 것 같다.

탄봉 척산리(尺山里) 마을 중의 하나로 남동쪽 마을이다.

마치장(馬馳場) 마을 동쪽 산기슭 벌판. 이전에 말을 기르던 곳으로 추정된다.

만호첨사유허(萬戶僉使遺墟) 탄봉 마을에 있는 터. 예전에 수군만호첨사(水軍萬戶僉使)가 거느린 부대가 있던 자리라고 한다.

망태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명가산 주봉산(朱鳳山)과 목우(牧牛)재 사이에 있는 산. 개인의 것이 아니고, 면(面)의 가산(家産), 즉 재산이라는 뜻의 면가산(面家産)이 변해서 명가산이 되었다고 한다.

명당골 마을 서쪽 가매소 개울 상류에 있는 골짜기. 풍수지리상 명당자리가 있다고 한다.

목우(牧牛)재 설악동과 척산리를 연결하는 고개(산천편 참조).

목우(牧牛)재 개울 마을 남쪽 목우(牧牛)재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 마을 입구에서 가매소 개울과 합쳐져 청초천(靑草川)을 형성한다.

물안골 마을 동남쪽에 위치한 골짜기. 주봉산(朱鳳山)으로 이어진다.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방아골이라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에너레 암지동 끝 달마봉(達磨峰) 북쪽 기슭에 있는 큰 암반. 너레는 너럭바위, 즉 넓고 평평한 큰 암반을 뜻하며, 범이 미끄러졌다고 하여 범에너레라 부른다.

병풍(屏風)바위 마을 서쪽 망태골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병풍을 처 놓은 것 같다고 한다.

사당골 마을 동쪽 응골 마을과의 경계에 위치한 골짜기.

서산태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서쪽에 있는 산사태가

난 골짜기라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암지동(암지골) 마을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옛날에 암자가 있었으므로 암자골이라고 하던 것이 암지골, 암지동으로 변하였다.

양짓말 척산(尺山)에 있는 마을 중의 하나. 가매소(가마소) 개울 남쪽 마을.

응달말 척산(尺山)에 있는 마을 중의 하나, 양짓말 건너편에 있는 마을.

작은 너레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큰 너레골에서 왼편(북쪽)으로 갈라진다. 너레는 너럭바위 즉, 넓고 평평한 큰 암반을 뜻한다.

작은 늑동골 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큰 늑동골 바로 남쪽이며, 현재 종합경기장이 자리 잡았다.

주봉산【朱鳳山, 朱峰山, 주왕재】 마을 서북쪽 척산리(尺山里)와의 경계에 있는 산. 해발 338m(산천편 참조).

증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척산(尺山) 마을 뒷산. 산이 곡척(曲尺)처럼 생겼다 함.

척산교(尺山橋) 청초천(靑草川) 상류 척산(尺山) 마을 입구에 놓인 다리(교량편 참조).

척산리(尺山里) 본래 노리(蘆里)의 지역으로서 척산(尺山) 밑이 되므로 척산이라 하였는데, 1942년 속초읍제 실시에 따라 학사평(鶴沙坪)을 병합하여 척산리(尺山里)라 하여 노리(蘆里)에서 갈라져 독립하였다.

큰 늑동골 마을에서 서북쪽 학사평(鶴沙坪) 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바로 남쪽이 작은 늑동골이다.

척산 온천(尺山溫泉) 척산(尺山)에 있는 온천.

파명당 목우(牧牛)재와 달마봉(達磨峰) 사이에 있는 터. 현재 송신탄이 세워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명당자리가 탄이 나서 파보니 그곳에서 학이 세 마리가 나와 한 마리는 양양군(襄陽郡) 강현면 강선리 쪽으로, 다른 한 마리는 보광사(普光寺) 쪽으로, 또 다른 한 마리는 학사평(鶴沙坪) 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탑상골 마을 서쪽 암지동에서 갈라진 골짜기, 노학동 3층 석탑(塔)이 있는 곳이다.

6. 신흥리(新興里)

5·16 군사정변 후 군사 정부의 개간 정책에 따라, 1962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이주되어 뒷버덩에 정착시킨 마을이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1963년 동(洞)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주변의 다른 동리와 함께 노학동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흥리라는 땅이름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상에동네 【상에, 신흥상】 학사평(鶴沙坪) 끝(서쪽) 마을. 새로 집단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건설한 마을이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사평(鶴沙坪)에 소속되지 않고 신흥리에 소속 되었으며, 신흥리 위쪽(서쪽)에 위치하였으므로 신흥상(新興上), 또는 상에라 불린다.

신흥교(新興橋) 청초천(靑草川)에 놓여 신흥 2리(新興二里)와 척산리(尺山里)를 연결하는 다리.

신흥 2리 【新興二里, 신흥하】 노리(蘆里)와 척산(尺山) 사이의 뒷버덩에 위치한 마을. 신흥 1리(新興一里) 밑(남동쪽)에 해당하므로 신흥하(新興下)라고도 부른다.

신흥 1리(新興一里) 설악(雪嶽) 한화리조트 바로 앞(남동쪽) 마을. 뒷버덩에 건설된 신흥리(新興里)의 중심 마을이다.

7. 학사평(鶴沙坪) · 자활촌(自活村)

학사평(鶴沙坪)의 원래 이름은 딱사벌이었는데, 후에 학이 내려와 앉는 벌판이라고 하여 ‘딱’자 대신 ‘학(鶴)’자를 써서 학사평(鶴沙坪)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딱사벌은 농사가 잘 안되는 딱한 벌판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발음상 딱사밭이라고 한다.

자활촌(自活村)은 학사평(鶴沙坪) 벌판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원래 마을이 없었으나 1961년 군사 혁명 정부에 의한 집단 이주로 새로 건설된 마을이다. 자활촌(自活村)은 말 그대로 스스로 살아간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이다.

구복암(求福菴) 심방골에 있는 암자.

명당골 학사평(鶴沙坪) 남서쪽 골짜기.

미시령(彌矢嶺) 속초와 인제를 연결하는 고개(산천편 참조).

심방골 마을 남서쪽, 명당골 서쪽 골짜기. 달마봉(達磨峰)으로 이어진다.

웅장골 마을 남서쪽, 심방골 서쪽 골짜기. 계조암(繼組菴) 밑으로 이어진다.

원암교(元岩橋) 용촌천(龍村川) 상류에 놓여 학사평(鶴沙坪)과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원암리(元岩里)를 연결하는 다리.

코끼리바위 명당골에 있는 바위. 바위 형상이 코끼리처럼 생겼다.

큰령 미시령(彌矢嶺).

호랑바위 명당골에 있는 바위. 바위 형상이 호랑이처럼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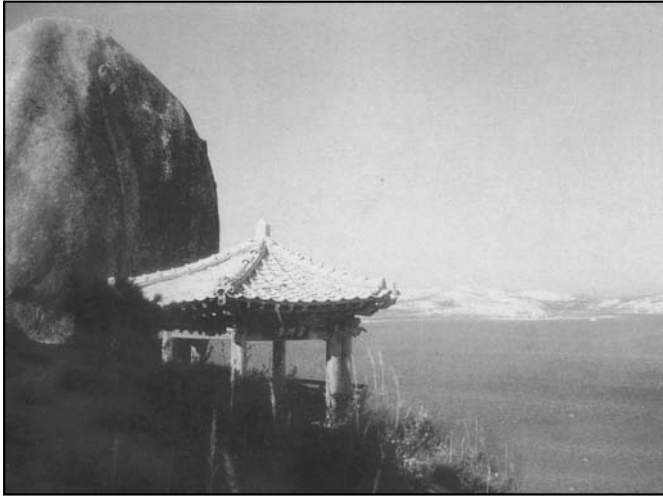
금호동(琴湖洞)

1. 금호동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4구를 금호동(琴湖洞)이라고 명명하였다. 금호동은 신라 화랑인 영랑(永郎)이 선유하였다는 영랑호(永郎湖)와, 이중환의 《택리지》에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로 꼽혔던 청초호(靑草湖)의 두 호수와 연하고 있고 옛날부터 시인들이 이 호수의 승경을 노래한 시문을 남긴 것처럼 호수의 주변이 아름다워 어디선가 거문고 소리가 들릴 듯하다 하여 이런 낭만적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옛날 고려말엽 동문수학했다는 안축(安軸)과 이곡(李穀) 두 시인이 이 호수에서 선유하면서 음자를 놓고 서로 시를 읊은 것을 보면 가히 금호동의 동명이 돋보인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호동명(琴湖洞名)은 거문고 소리와 호수의 아름다운 정경이 서로 어울리는 깊은 뜻이 담긴 땅이름이라 할 것이다.

금장대(金將臺) 영랑호(永郎湖) 남쪽 범바위 바로 옆(동쪽)에 있다. 6·25 한국전쟁 때 이 지방 수복에 공이 많았던 제 11사단장 김병휘(金炳徽)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풍우에 퇴락되어 정자는 간 곳 없고, 시멘트로 축조한 6각으로 된 기단부만 남아 있다. 김장군(金將軍)에서 이름이 유래되어 김장대(金將臺)라고 불렀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은 지도에 모두 금장대(金將臺)로 표기되고 있다.



금장대(金將臺) 옛사진

범바위 영랑호(永郎湖) 남서쪽 가에 있는 큰 바위. 그 형상이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범바위라고 부른다. 경관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바위에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다. 민간 신앙 쪽에서는 성스러운 바위로 여기고 있어 무속인들의 발길이 잦다.

40계단 금호동 철독길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가다가 언덕 위로 오르기 위해 만들어진 계단인데 수가 40개이다.

연풍사(蓮豊寺) 미시령(彌矢嶺) 도로가에 있는 신흥사(新興寺)에 딸린 조그만 절.

응고개⁵⁶⁾ 지금의 속초시(束草市) 우회도로라고 불리는 교동에서 영랑동 영랑교까지의 통로. 속초여자중학교 앞길에서 교동 쪽으로 속초초등학교 뒷길까지 내리막으로 쪽 뺀 언덕길은 옛적에는 소나무가 울창했던 곳으로 속초에서 노학동(즉, 갈골, 배나무골, 노리)을 통하던 유일한 도로였다. 이 길은 우차가 다닐 수 있었던 큰 언덕진 고갯길이었다. 교동 천주교회 앞 만천동 입구에는 큰 소나무 받이었는데, 이곳에서 중앙동 공설운동장 옆 옛 짱터까지 40도 각도의 긴 산길이 바로 응고개길이다. 응고개란 명칭은 농촌 사람들이 뽕감나무 지계를 지고 이 고개를 힘겹게 넘으면 지개 뭉빵 양쪽 어깨가 응어리진다고 하여 응고개라 불러왔다.

56) 김정우, 앞의 책, 80쪽 참조.

2. 중앙동(中央洞)

수복 이후 매년 인구 증가 추세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7번 국도변은 금융업, 청초호(靑草湖) 연안은 어항과 더불어 발전하여 왔으며, 1963년 속초시(束草市) 승격 후 속초리(束草里) 3구로,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시(束草市)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까닭으로 중앙동(中央洞)이라고 명명하였다.

중앙시장 속초(束草)에서 제일 큰 시장. 속초리(束草里) 3구에 위치했으므로 3구 시장이라고 부르던 것이, 동(洞)제 실시 때 3구가 중앙동으로 이름 지어져 이에 따라 중앙시장으로 불린다.

야채시장 중앙시장 위(서쪽)에 야채를 취급하던 시장이었는데, 그 후 중앙시장이 넓어져서 지금은 중앙시장에 포함되어 버렸다. 그러나 야채시장이란 말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용숫골(용소골) 현재 중앙시장이 들어서 있는 골짜기의 옛 이름. 지금은 매립되어 없어졌지만, 골 입구에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 소(沼)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용소골이라 부르던 것이 용숫골로 변화되었다.

짱터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중앙시장, 시외버스 정류장, 미시령(彌矢嶺) 도로로 갈라지는 교차로의 옛 이름. 예전에 이곳에서 짱치기 놀이를 했으므로 짱터라고 불렀다.

영랑동(永郎洞)

1. 영랑동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속초리(束草里) 1구를 영랑호(永郎湖)에 인접하였다고 하여 영랑동(永郎洞)으로 명명하였다.

삼짜개 영랑동(永郎洞) 바닷가 마을. 남쪽으로 성황봉(城隍峰) 산등성이를 경계로 동명동(東明洞) 마짜개 마을과 인접해 있다. 바다 사람들의 말로 새쪽은 동쪽, 마쪽은 남쪽을 뜻하는데, 이 고장 방언으로 새쪽을 새짜, 마쪽을 마짜이라고도 하고, 새짜 마을, 마짜 마을의 의미로 삼짜개, 마짜개로 불린다.

영랑호(永郎湖) 속초시(束草市) 북쪽에 위치한 큰 석호(瀉湖) (산천편 참조).

영랑교(永郎橋) 영랑호(永郎湖)의 바다쪽 출구에 놓여 영랑동과 장사동을 연결하는 다리.

영랑시장(永郎市場) 영랑동에 위치한 시장. 현재는 조그마한 시장이나, 속초(束草)의 중심지가 영랑동, 동명동이었을 때는 여기가 제일 크고 먼저 생겼으므로 제일시장이라고도 했었다. 또 속초가 시(市)로 승격되어 동(洞)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영랑동

이 속초리(束草里) 1구였으므로 1구 시장이라고도 했다.

개안골 지금 속초문화원(束草文化院)이 세워진 지점에서 동진리호텔 건물이 선 앞쪽 일대로 주택들이 들어선 둥근 원형의 옛 논밭 자리였던 곳. 개안골은 현 속초지방법원 쪽에서 뺏어 내린 산맥이 서북쪽을 둘러 안고 서쪽으로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보광사 뒷산이 감싸고 있어 분지모양을 띤 논밭 자리였다.

개안논 개안골 안에 있던 논. 지대가 영랑 호수보다 낮아 가뭄이 심할 때는 영랑 호수를 끌어들여 농사를 지었고, 반대로 장마가 저서 개안 논물이 호수보다 높으면 호수 쪽으로 빼내곤 하였다.

포교당자리 일제 시대 때 설악심상소학교(일본인 자녀들 학교)가 있었던 자리.

2. 장사동(章沙洞)

장사동(章沙洞)은 과거에 고성군(高城郡) 지역이었다. 조선 시대 말까지는 간성군(杆城郡) 토성면에 속하였다.⁵⁷⁾ 일제 시대(日帝時代)에 들어와 간성군(杆城郡)이 고성군(高城郡)과 양양군(襄陽郡)에 분속되면서 양양군(襄陽郡)으로 편입되기도 하였지만,⁵⁸⁾ 영랑호(永郎湖)까지 간성군(杆城郡) 영역이었다.

그러던 것이 속초(束草)의 발전에 따라 생활 편의상 17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6542호로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사진리(沙津里)와 장천리(章川里)가 속초시(束草市)로 편입되었고, 두 동리가 합쳐져서 두 동리의 첫 글자를 따서 장사동(章沙洞)으로 불리게 되었다.

가. 사진리(沙津里)

장사동(章沙洞)의 중심 지역이다. 원래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사진리(沙津里)로 되어있던 것이, 1973년 속초시(束草市)로 편입되면서 장천리(章川里)와 합쳐져서 장사동(章沙洞)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선 후기 읍지(邑誌)에는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이, 일제 시대부터 줄여서 사진리(沙津里)라고 불리었다. 속칭으로는 지금도 모래기, 나룻모래기라고 한다.

사진리 지역은 본래 육지가 아닌 바다였고, 영랑호(永郎湖)도 호수가 아니라 바다였다. 그러던 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가 쌓여서 영랑호(永郎湖)는 호수로 변하게 되고, 사진리에는 마을

57) 《관동읍지(關東邑誌) 간성(杆城) 방리조》, 《간성읍지 방리조》

58) 《조선도부군면정동리개정구역표 강원도 양양군》

이 형성되었다.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모래기라고 불리었고, 이것을 한자로 사야지(沙也只)라고 표기한 것이다. 사야지(沙也只)라는 표기는 지금도 땅이름에 더러 남아 있는 이두식 표기이다.

고개 넘어 용촌리(龍村里)는 일제 시대에 용포동(龍浦洞)과 사촌리(沙村里)가 합쳐져서 용촌리(龍村里)가 되었는데, 사촌리(沙村里)도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역시 모래기라고 불린다. 그러나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는 나룻모내기, 용촌리(龍村里)의 사촌리는 촌모래기라고 하여 두 마을을 구분한다.

강장군산(姜將軍山) 속초고등학교 뒷편(북쪽) 산. 강장군(姜將軍)이란 장사가 이곳에 묻혔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강장군(姜將軍)이라는 힘이 무척 센 장사가 용촌리(龍村里) 번개(예전에는 호수였으나 지금은 논으로 변했음)에서 태어났고, 역시 용촌리(龍村里) 용지호(龍池湖, 순개 또는 방축개라고도 한다)에서는 강장군(姜將軍)이 탄 용마(龍馬)가 나왔다고 한다.

고바우 영랑호(永郎湖) 동북쪽 가에 있는 바위. 코처럼 생겼다고 하여(고는 코의 古語) 고바우라고 하며, 그 부근 갯가를 고바우에 연유하여 고밭개라고 한다. 다른 말로 신선이 놀던 바위라고 하여 신선바위, 또는 바위 형상이 윤선(輪船)같다고 하여 윤선바위, 두꺼비 같다고 하여 두꺼비바위라고도 한다.

고밭개(고바웃개) 영랑호(永郎湖) 동북쪽 고바우 부근의 갯가. 고바위가 있는 갯가라는 뜻으로 고바웃개라고 하던 것이 고밭개로 변화였다.

고추골 마을 서쪽, 영랑호(永郎湖)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노적(露積)바위 영랑호(永郎湖) 동북쪽 마을 안에 있는 바위. 바위 형상이 노적(露積)가리를 쌓은 것 같았으나, 지금은 깨어 부서져 없어지고 바닥만 남아 있다.

머리개 흰고개 밑(동남쪽) 갯가. 별판에 위치한 갯가라는 뜻의 별개가 변해서 머리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빨주박(박쥐바위) 영랑호(永郎湖) 북쪽 가에 있는 바위. 바위에 박쥐가 서식하므로 박쥐바위라고 하던 것이 빨주박으로 변했다.

백쟁이 영랑호(永郎湖) 북쪽 엄달개 서편 골짜기.

서낭골 속초고등학교 뒷 골짜기.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서낭산 흰고개 동편, 해경 충혼탑(海警忠魂塔)이 위치한 산. 산의 남쪽에 서낭당이 위치하고 있다.

엄달개 현재 속초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계곡으로 응달진 곳이다.

해경 충혼탑(海警忠魂塔) 우리나라 해안을 지키다 순국한 해양경찰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운 탑. 흰고개 동편 서낭산에 위치하고 있다.

형제바위 【兄弟岩】 마을 앞 바닷가에 위치한 두 개의 바위. 두 개의 바위가 형제처럼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황새골 영랑호(永郎湖) 북쪽,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전에 황새가 많았다.

흰고개 마을 북쪽 고성군(高城郡) 토성면 용촌리(龍村里)와 연결되는 큰 고개. 백토가 산출되므로 흰고개라고 하였다.

나. 장천리 【章川里, 노루내】

장천리(章川里)는 본래 ‘노루 장(章)’자 장천리(獐川里)였던 것이, 일제 시대부터 ‘글 장(章)’자 장천리(章川里)로 바뀌었다. 장천(章川)의 ‘노루 장(獐)’은 마을 서쪽 원암리(元岩里)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을 앞 냇가가 노루목고개에서 시작되어 흐르므로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장천(獐川)이라고 한 것이다. 후에 장천(章川)으로 변하였다.

국사봉 【國師峰 국수봉, 국시봉, 된봉】 고성군(高城郡) 토성면 용촌리와의 경계에 위치한 산봉우리.

노루목 고개 장천리(章川里)에서 원암리(元岩里)로 넘어가는 고개. 전국적으로 무수히 분포하는 다른 노루목 고개와 마찬가지로 고개가 길게 늘어졌으므로 늘목, 늘목이라고 하던 것이 노루목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갯버덩 마을 동쪽 영랑호(永郎湖)에 인접한 버덩.

건녕골 마을 동남쪽 골짜기.

고추골 마을 북동쪽 국사봉(國師峰) 바로 서편 골짜기.

골논골 마을 북동쪽 큰바위골과 방축골 사이의 골짜기.

던바우 마을 동쪽 던바우골에 있는 바위.

던바우골 마을 동쪽 샘치골 다음(동쪽)에 있는 골짜기.

독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독바우 독골에 있는 바위.

뒷골 마을 뒷(북)쪽에 있는 골짜기.

망태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는 마을 진입로가 망태골로 뚫려 있었다.

물안골 마을 서쪽 큰령골에서 오른편(북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물레방아가 있어서 물방아골이라고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우배기 큰령골에서 왼편(남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현재 한 화리조트 바로 뒤편으로 큰 바위가 산등성이에 박혀 있다.

방축(防築)골 마을 북동쪽 골짜기. 예전에 방축(防築)이 있었다고 한다.

불매앞 치시골 입구를 가리키는 말. 예전에 이곳에 대장간이 있어서 풀매(풀무의 사투리)를 사용하여 불을 일으켜 쇠를 녹였으므로, 풀매를 사용하는 대장간 앞이라는 의미로 풀매앞이라고 하던 것이 불매앞으로 변화되었다.

샘치골 마을 남동쪽 건널골과 던바우골 사이의 골짜기.

서낭봉 마을 앞 큰령골 입구와 독골 입구 사이의 산봉우리. 서낭당이 있다.

싱싱골 마을 서쪽 큰령골에서 오른쪽(북쪽)으로 갈라지는 골짜기. 물안골 서쪽이다.

안산 마을 앞산. 예전에는 이곳에 서낭당이 있었다.

여바우골 마을 동북쪽 골짜기. 여우 바우골이 줄어들어서 여바우골이 되었다.

여우바우 여바우골에 있는 바위. 바위에 굴이 있는데 예전에 여우가 굴에서 살았다고 한다.

장재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치시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큰령골 마을 서쪽으로 뚫린 큰 골짜기. 큰령, 즉 미시령(彌矢嶺) 쪽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골짜기라는 뜻이다.

큰 바위 큰바위골에 있는 바위.

큰 바위골 마을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타앞 마을 남쪽 불매앞과 망태골 사이를 가리키는 말.

동명동(東明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2구를 동해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밝아온다는 의미로 동명동(東明洞)이라고 하였다.

관음암(觀音岩) 속초의료원 뒷쪽(남서쪽) 산봉우리에 동쪽을 향해 서있는 큰 바위. 바위에 관음(觀音)이란 큰 글자가 새겨져 있다. 예로부터 이곳에 관음 보살(觀音菩薩)이 출현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이에 의거하여 1952년 군정이 실시되고 있을 때 글자를 새겼다.

보광사(普光寺) 영랑호(永郎湖) 동남쪽 골짜기에 위치한 절. 1937년 정화담(鄭華潭) 스님이 세웠다. 절 이름을 보광사(普光寺)라고 한 것은 부처의 제자 53 불(佛) 중 수제자인 보광불존(普光佛尊)을 이 절에 모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에 증수하였으며, 절 입구 암벽에 '정화담(鄭華潭) 대법사(大法師) 보광사 창건(普光寺創建)'이라고 새겨져 있다.

영금정(靈琴亭) (땅이름의 정리 참조).

비선대(秘仙臺) 지금은 영금정(靈琴亭)이라고 한다(고적편 참조).

오리바위 영금정(靈琴亭) 앞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 오리가 자주 와서 앉는다고 한다.

수복기념탑(收復紀念塔) 일명 수복탑(收復塔)이다. 이 탑은 1954년 3월 당시 읍장이었던 김근식(金根植), 피난민 연락소장 박상선(朴相善), 후방 반공 계몽인 박성주(朴成柱) 등이 피난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수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1군단의 도움으로 1954년 5월 10일 건립하였다. 그러나 1983년 4월 27일 새벽 강풍으로 탑 위의 모자상(母子像)이 부서져 버렸다. 그러자 수복탑(收復塔)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에 의하여 1983년 수복기념탑 복원 건립위원회(收復紀念塔 復元 建立委員會)가 발족하여 시민 성금 4천여 만원과 시비 1천여 만원으로 원래 이 모자상(母子像)을 조각했던 박칠성(朴七星)에게 수복기념탑(收復紀念塔)과 모자상(母子像) 등 전체를 복원하게 하여 그 해(1983) 11월 17일 제막식(除幕式)을 가졌다.

복원된 이 탑은 좌대폭 4m, 탑신 높이 7m, 모자동상 높이 2.55m, 총탑 높이 9.55m로 원형보다 2m가량 높다.

통천군민 순국동지 충혼탑(通川郡民殉國同志忠魂塔) 영랑호(永郎湖) 동남쪽 가에 있다. 이 탑은 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을 들고 공산군과 싸운 반공전사자 및 6·25 전몰용사 중 통천군(通川郡) 출신 114명의 불멸의 충혼을 탑에 새겨 반공을 다짐하고 통일을 맹세하고자 전국 통천군민(通川郡民)의 회사금으로 1969년 10월 15일 건립하였다.

낙시바위 통천군민 충혼탑 바로 뒤(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 태공들이 많이 몰려들어 낙시를 했으므로 낙시바위란 이름이 붙여졌으나 지금은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마짜개 마짜, 마쪽이라고도 함. 등대가 있는 성황봉(城隍峰)

산등성이 남쪽 마을.

불당골 보광사(普光寺) 옆(동쪽)골짜기. 현재는 활터가 들어서 있으나, 예전에는 절이 있었다. 한자로 불당곡(佛堂谷)이라고도 한다.

성황봉(城隍峰) 현재 등대가 있는 산봉우리. 지금은 약간 서쪽으로 옮겨졌으나 예전에는 등대 자리에 성황당(城隍堂)이 있었고, 그것에 연유하여 성황봉(城隍峰)이라고 부른다.

아랫말 수복탑(收復塔) 쪽이 윗말인데 대해 등대 쪽 마을을 아랫말이라고 불렀다.

우렁골(우용골)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이 위치한 골짜기의 옛 이름.

웃말 등대 쪽이 아랫말인데 대해 수복탑(收復塔) 쪽 마을을 일컫던 말.

웅고개 우렁골에서 용숫골로 가는 고개의 옛 이름.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공설운동장, 중앙 시장 입구로 가는 고개.

장골(장안골) 법원·검찰청과 감리교회·천주교회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마을의 옛 이름.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들레에 성터 흔적이 있었다. 일제 시대에 발행된 《조선 보물·고적 조사 자료》에 수록된 ‘속초리 성지(束草里城地)’는 바로 이곳을 말한다. 일명 장안골이라고 했다.

중간말 아랫말과 윗말의 중간에 위치했던 마을의 옛 이름.

촌말 우렁골과 용숫골 사이의 마을을 부르던 옛 이름. 옛 경찰서 뒤편 마을이다.

청호동(靑湖洞)

본래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곳이었으나, 수복 이후 피난민들의 거주로 마을이 형성되어 속초리(束草里) 5구가 되었다가, 청호동(靑湖洞)으로 바뀌었다. 한국전쟁 때 청호동에는 정어리 공장이 두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후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움막 형태의 집들이 들어서 신포마을, 앵고치마을, 짜꼬치마을, 신창마을, 정평마을, 홍원마을, 단천마을, 영흥마을, 이원마을 등의 집단촌이 형성되어 있었다.⁵⁹⁾ 청호(靑湖)라는 이름은 청초호(靑草湖)에서 온 것이다. 청호동에는 함경도(咸鏡道)에서 내려 온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함경도(咸鏡道) 사투리 ‘아바이’를 사용하여 ‘아바이 마을’이라고도 한다.

갯배나루 중앙동(中央洞)과 청호동(靑湖洞)을 연결하는 갯배를 타는 곳. 이전에는 5구 도선장이라고도 했다.

조도【鳥島, 새섬】 청호동(靑湖洞) 앞 바다에 있는 섬. 우리 말로는 새섬이고, 한자(漢字)로는 조도(鳥島)이다. 강원도지사(江原道知事) 이용(李龍)이 이 섬에 정자를 짓고 자신의 이름 ‘용(龍)’자와 ‘풀 초(草)’자를 따서 용초정(龍草亭)이라고 이름 붙인 일로 인하여 용초도(龍草島)란 이름도 있다. 현재 정자는 헐리고 조그만 등대만 서 있다.

59) 속초문화원,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2000, 133~134쪽.



조도 【鳥島-용초도(龍草島)】

주교 【舟橋, 배다리】 반부득 옆에 있는 마을. 오늘날의 청호동이다. 동쪽은 동해 바다요 서쪽은 청초 호수, 그 북판으로 다리 모양 육지가 뻗어서 도선장(갯배)에 이어졌기에 부두와 같다 하여 청호동을 배가 닿은 부두, 반부득 또는 배다리라고 했다.⁶⁰⁾ 한자로 주교(舟橋)라고도 한다. 해방 전까지 배로 건너다니던 사진이 있다.



해방 전 갯배나루의 겨울

60) 김정우, 앞의 책, 38쪽 참조.

제 5 장 교 량



제 5 장 교 량

1. 쌍천교(雙川橋)

쌍천(雙川) 하류에 놓여 대포동(大浦洞) 내물치리(內勿淄里)와 양양(襄陽) 강현면(降峴面) 물치리(勿淄里)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일명 큰다리라고도 한다.

2. 상복교(上福橋)

장재터와 상도문리(上道門里) 2구를 연결하는 쌍천(雙川)에 놓인 다리. 이전에는 장재터가 양양군(襄陽郡) 강현면 상복리에 속했으므로 상복교라고 이름하였다.

3. 척산교(尺山橋)

청초천(靑草川) 상류 척산(尺山) 마을 입구에 놓인 다리이다.

4. 신흥교(新興橋)

청초천(靑草川)에 놓여 신흥 2리(新興二里)와 척산리(尺山里)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5. 영랑교(永郎橋)

영랑호(永郎湖)의 바다 쪽 출구에 놓여 영랑동(永郎洞)과 장

사동(章沙洞)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6. 청초교(靑草橋)

청초천(靑草川) 하류에 놓여 교동(校洞)과 조양동(朝陽洞)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쌍다리라고 부른다.

7. 도문교(道門橋)

상도문 위쪽에서 설악동 C단지로 연결되는 다리이다.

8. EXPO 1교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 당시 북쪽 주차장과 남쪽 주행사장을 연결하기 위해 가설한 청초천의 교량으로 길이 98m, 폭 15m이며, 1999년 건립되었다.

9. EXPO 2교

북쪽 주차장과 남쪽 주행사장의 우회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가설한 청초천의 교량으로 1999년 건립되었다.

10. 소야교

수북로와 조양로를 연결하는 청초천의 교량으로 1997년 건립.

제 6 장 고 적(古蹟)



제 6 장 고 적(古蹟)

1. 사찰(寺刹)

가. 신흥사(新興寺)⁶¹⁾

신흥사(新興寺)는 1912년 31본산 제도 실시 때부터 건봉사(乾鳳寺)의 말사로 있다가, 1971년에 건봉사 대신 대한 불교 조계종(大韓佛敎 曹溪宗) 제 3교구 본사로 승격되어, 현재 25개 사암(寺庵)을 거느리고 있다.

신흥사(新興寺)는 자장율사가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현재의 켄싱턴 호텔 자리에 향성사(香城寺)와 현 내원암(內院庵) 자리에 능인암(能仁菴)을 창건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신라 효소왕 7년(698)에 향성사와 능인암(能仁菴)이 모두 불타 버려, 효소왕 10년(701)에 의상대사가 능인암(能仁菴) 자리에 절을 고쳐 짓고 이름을 선정사(禪定寺)라 하였다.

조선 시대 인조(仁朝) 20년(1642)에 선정사에 불이 나자 인조 22년(1644)에 승려 영서(靈瑞), 혜원(惠元), 연옥(蓮玉) 등이 선정사 아래쪽에 절을 짓고 이름을 신흥사(神興寺)하였는데, 이렇게 이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서, 혜원, 연옥 세분이 절의 증창에 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 세 분 스님 모두의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이

61) 예전에는 신흥사(神興寺)라 부르다가 1993년부터 신(神)자를 신(新)으로 하여 신흥사(新興寺)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땅은 수 만대에 걸쳐 삼재(三災)가 미치지 않는 신성한 지역이니 여기에 절을 지으라고 점지해 주었다. 이 자리가 현재의 신흥사 자리이며, 신흥사(神興寺)란 신성한 지역이라고 점지해 준 데서 붙여진 것이다.

조선 후기에도 많은 건물이 증건, 중수되었으나 1950년 한국 전쟁으로 경판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들이 피해를 당하였다. 현재 절에는 지방유형문화재 제 14호인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 제 15호인 경판, 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 제 104호인 보제루 등이 있다.



1956년 신흥사 전경

나. 향성사(香城寺)

신라 자장율사가 진덕여왕 6년(652)에 ‘중향성 불국토’라는 뜻의 향성사(香城寺)라는 절을 창건하였으나 신라 효소왕 7년

(698)에 불타버렸다. 현재 그 터라고 추정되는 곳에는 켄싱턴 호텔이 자리하고 있고, 유물로는 호텔 앞 길가에 속초(束草) 지역의 유일한 보물인 제 443호 향성사지 3층 석탑 1기가 남아 있다.

다. 능인암(能仁庵)

신라(新羅) 진덕여왕(眞德女王) 6년(652)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향성사(香城寺)를 창건할 때 동시에 능인암【能仁庵, 현재 내원암(內院庵)자리】을 세웠으나 효소왕(孝昭王) 7년(698)에 불타 버렸다.

라. 선정사(禪定寺)

능인암(能仁菴)이 화재로 소실되어 효소왕(孝昭王) 10년(771)에 의상조사(義湘祖師)가 능인암(能仁菴) 터에 절을 중건하여 선정사(禪定寺)라고 하였다. 선정사는 조선(朝鮮) 인조(仁祖) 20년(1642)에 화재로 다시 절을 옮기게 되었다.

마. 계조암【繼祖庵, 계조굴】

신흥사(新興寺) 북서쪽 2.3km 지점에 위치한 자연 석굴로 된 암자이다. 신라(新羅) 진덕여왕(眞德女王) 6년(652)에 자장 율사(慈藏律師)가 향성사(香城寺)와 같이 건립하였다.

계조암(繼祖庵)과 관련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⁶²⁾

62) 《여지도서(與地圖書) 양양부 사찰조》. “在府東北五十里 天吼山下 窟勢

천후산(天吼山) 아래에 있다. 글씨가 깊고 안에 절이 있는데 돌로 지었다.

계조암(繼祖庵)이라고 이름한 것은, 신흥사(新興寺)와 관련한 많은 조사들이 -원효(元曉), 의상(義湘), 동산(洞山), 각지(覺智), 봉정(鳳頂)- 이 곳에 계속 머물면서 정진 수도하여 도를 얻은 곳이라 하여 계조암(繼祖庵)이라고 하였다.

계조암(繼祖庵) 오른쪽의 큰 암벽에 ‘계조굴(繼祖窟)’이라는 큰 글씨가 새겨져 있고, 그 옆에는 ‘운사국 서(書)’라고 새겨져 있다. 다시 말해 이 글자는 운사국이 쓴 것이다.⁶³⁾

마. 소림암(小林庵)

달마봉(達磨峰) 기슭에 있었던 신흥사(新興寺) 부속 암자이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사. 내원암(內院庵)

신흥사(新興寺) 북서쪽 1.5km지점에 위치한 암자이다. 조선 인조(仁祖) 20년(1642)에 선정사가 불타자, 2년 후인 조선 인조 22년(1644)에 용암대사가 선정사 자리에 내원암(內院庵)을 창건 하였다. 그 후 철종과 고종 때 화재가 있었으나 증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내원암(內院庵)은 비구승의 암자이고, 정문에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선생이 ‘내원암(內院庵)’이

隘澗 中有僧舍因石爲屋”

63) 《현산지 사찰조》와 《양양부 읍지》에는 판서 윤순이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아. 안양암(安養庵)

신흥사(新興寺) 동북방 300m지점에 있는 암자이다. 이 암자는 사승인 준경(俊鏡)이 정조 9년(1785)에 창건하였다.⁶⁴⁾ 안양암이라고 한 것은, 혜원(慧遠) 법사의 백련결사(白蓮結社)에 동참하여 안양국(安養國)에 왕생(往生)하자는 의미라고 한다.

고종 11년(1874)에 사승 만우(萬愚)가 안양암을 개와하였고, 고종 12년(1875)에 보림(普琳)이 안양암 불상을 개금하였다. 현재의 안양암(安養庵)은 1949년에 비구니 이대덕(李大德)이 중창한 것을 다시 1969년에 비구니 승려 임법지(林法知)가 보수한 것이다.

64) 《신흥사사적(神興寺史蹟)》 참조.

2. 누대(樓臺)

가. 비선대(秘仙臺)

속초(束草)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삼 면이 바다와 잇닿아 있고 한쪽 면이 육지와 잇닿은 석산이 있었는데 이 석산이 솔산이다. 지금은 방과제 쪽에 일부가 남아 그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곳 일대를 비선대(秘仙臺)라고 불렀다. 하지만 기록에는 석산 위에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비선대(秘仙臺)에 관한 기록은 앞에서 제시하였다. 지금은 영금정(靈琴亭)이라고 한다. 영금정(靈琴亭)은 1926년 이후 《면세일반》에서 처음 기록되며 전설과 함께 지금은 영금정(靈琴亭)으로 불린다.

나. 비선대(飛仙臺)

소공원에서 남서쪽으로 2.3km지점의 식당동(食堂洞)에 위치한 거대한 암반을 말한다. 바로 뒤에 미륵봉(彌勒峰)이 우뚝 솟아 있고, 남쪽으로는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 서쪽으로는 마등령(馬登嶺)으로 이어지는 곳이다.

약 300m 아래에 있는 와선대(臥仙臺)에 누워서 경치를 감상하던 마고선녀(麻姑仙女)가 이 곳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비선대(飛仙臺)라고 한다.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비가 많이 내리면 비선대(飛仙臺) 반석 위로 흘러 몇 번이나 꺾이는 폭포를 이룬다. 연속된 바위에 폭포를 이루는 광경은 흡사 우의 자락이 펼쳐이는 것 같아, 예로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자연을

감상했다. 바위에는 많은 관찰사, 부사 그리고 알 수 없는 무명인들의 이름과 글이 새겨져 있는데, 특히 비선대(飛仙臺)라고 쓴 큰 글자가 대표적이다. 이 글씨는 윤순(尹淳)이 쓴 것이다.

다. 와선대(臥仙臺)

와선대(臥仙臺)는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을 찾아드는 입구 식당천(食堂川)에 자리 잡고 있다. 신흥사(新興寺) 서쪽 4km지점에 있으며 소나무가 울창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천연의 암반대석으로 옛날 신선이 놀던 곳이라 한다. 《현산지》에서는 와선대(臥仙臺)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⁶⁵⁾

하얀 돌이 넓게 펼쳐져 맑은 물이 가운데로 흐르면서
혹은 퍼져서 폭포가 되고 혹은 머물러 소가 되었다.

이 와선대(臥仙臺)의 반석은 높이가 약 3척, 폭이 약 10여 칸이 되므로 여기서 70~80명의 사람들이 앉아 놀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이 바위 위에 손톱이 긴 늙은 선녀인 마고선(麻姑仙)이 신선들과 함께 석대 위에서 바둑을 두고 거문고를 타면서 동천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하여 와선대(臥仙臺)라고 불린다.

라. 학무정(鶴舞亭)

설악산(雪嶽山) 대청봉(大靑峰)에서 발원되어 흐르는 쌍천변

65) 《현산지 고적조》. “臥仙臺 在雪嶽之東食堂洞中白石平鋪清川中流或布而爲瀑或停而爲潭”

송림 속에 위치한 정자이다. 이 정자는 고종 9년(1872)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일생을 학문 연구와 인재 육성에만 전념한 매곡처사 오윤환이 건립한 정자로서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 육모정이라고도 한다.

정자 4문 정면에는 다음과 같은 현판이 있다.

남 쪽 -- 학무정(鶴舞亭)	북 쪽 -- 영모재(永慕齋)
남서쪽 -- 경의재(敬義齋)	북동쪽 -- 인지당(仁智堂)

그리고 정자 안쪽에는 한시를 적은 현판이 13개가 걸려 있고, 천장 중앙에는 ‘용(龍)’자가 적혀 있다.

3. 성지(城地) 및 봉수(烽燧)

가. 대포 성지(大浦城地)

덕산(德山) 정상에 있다. 주위 70 칸 정도의 흙으로 쌓은 성으로 완전하지 못하다.⁶⁶⁾ 이 산에는 덕산 봉수(德山烽燧)가 있었으며, 1940년대까지도 봉수대의 석축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나. 속초리 성지(束草里城地)

1942년의 기록을 보면 속초(束草) 부락의 서쪽 방향으로 근접한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주위 약 삼백 칸으로 된 토성(土城)이다. 그 때까지만 해도 완전했다고 말하고 있다.⁶⁷⁾

다. 권금성(權金城)

설악산(雪嶽山) 꼭대기의 석성으로 둘레가 1,112척이고, 높이는 4척이다. 지금은 반쯤 남아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권(權)씨, 김(金)씨 두 집이 여기로 피난한 까닭으로 권금성(權金城)이라 하였다 한다.

낙산사(洛山寺) 기록에, “몽고(蒙古)가 우리나라에 쳐들어 왔을 때,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雪嶽山)에다 성을 쌓아서 방어하였는데 이곳이 아닐까”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후에도 권금성(權金城)에 관한 기록은 많이 남아 있다.⁶⁸⁾

66) 조선총독부, 《조선 보물고적 조사관리》, 1942(소화 17년), 543쪽 참조.

67) 조선총독부, 앞의 책, 143쪽 참조.



권금성(權金城)

라. 토왕성 폭포(土王城瀑布)

토왕(土王)굴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외설악(外雪嶽)을 대표하는 폭포로 겨울철에는 빙벽훈련장으로 산악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토왕성(土王城)이란 이름은 오행설에서 유래된 것 같다. 그 의미는 토기(土氣)가 왕성하므로 기암 괴봉이 발달하여 마치 폭포를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지도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⁶⁹⁾

토왕성(土王城), 부(府) 북쪽 50리, 설악산(雪嶽山)의 동쪽에 있다. 석성으로 쌓은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토씨 성(姓)을 가진 왕이 이 성을 쌓았다

68)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동국여지지》, 《연려실기술》, 《대동지지(大東地志)》 등에 기록되어 있다.

69) 《여지도서(與地圖書) 양양 고적조》. “在府北 五十里 雪嶽山東石築遺跡尚在俗傳古有土姓王築此云有瀑布數千丈飛下石壁間”

고 전한다. 폭포가 있는데, 수천 길이나 돌벽 사이로 날아 떨어진다.

조선 후기 읍지(邑誌)에도 모두 토왕성(土王城)이라고 표기하며 옛 성터가 남아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덕산 봉수(德山烽燧)

외옹치(外瓮峙)에 군부대가 있던 곳이다. 덕산 봉수(德山烽燧)는 남쪽으로 양양(襄陽) 수산 봉수(水山烽燧), 북쪽으로 간성(杆城) 죽도 봉수(竹島烽燧)와 연결되었다. 현지 사람들은 봉수터보다는 보통 봉화터라고 부른다. 설악산(雪嶽山)에서 동쪽으로 뻗은 봉우리가 달마봉(達魔峰), 주봉산(朱鳳山), 청대산(靑垚山)을 거쳐 이곳에서 끝난다. 이 산 이름이 덕산(德山)이므로 덕산 봉수(德山烽燧)라 했다. 덕산 봉수(德山烽燧)의 모양을 기록한 것은 다음과 같다.⁷⁰⁾

성지 도천면 대포리. 토목국소관. 대포리 부락의 북수정 산 정상에 있고, 주위 칠십 칸이며, 흙으로 쌓았다. 불완전하다.

70) 조선총독부, 앞의 책, 543쪽. “城址 道川面大浦里 土木局所管 大浦里 部落ノ北數町ノ山頂ニ在リ 周圍約七十間 土築, 不完全”

4. 탑 · 비석

가. 향성사지 3층 석탑(香城寺址三層石塔)

현재 켄싱턴호텔 앞 길가에 보물 제 443호로 지정된 3층 석탑 1기가 자리하고 있다. 이 석탑은 현존하는 신라 석탑 중 가장 북방에 자리하고 있다. 양식은 2층 기단으로 되어 있고, 탑신부(탑몸돌)는 3층으로, 옥개석(지붕돌)은 두꺼운 편이고 옥개석 받침(지붕돌 받침 또는 추녀 받침)은 5단으로 된 전형적인 신라 시대 석탑이다. 상륜부는 남아 있지 않다.

이 탑은 1966년 12월에 해체 보수 되었는데, 이 때 발표에 의하면 3층 탑신(塔身, 탑몸돌) 윗면에 $7 \times 5.5\text{cm}$, 깊이 9cm의 네모난 사리(舍利) 구멍이 있었으나 내부의 유물은 이미 없어졌다고 한다. 2001년 다시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고 탑의 높이는 총 4.33m이다.

어떤 기록에는 창건 당시 9층 석탑이 건립되었다는 기록⁷¹⁾이 있기 때문에, 이 탑이 9층 석탑이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탑의 양식으로 볼 때 3층 석탑이 분명하며 건립 연대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71) 《신흥사기》에 보면 신라 진덕 여왕 6년에 자장율사가 향성사를 창건하고 9층 석탑을 조성하고 불사리를 봉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양식을 볼 때 이 탑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향성사지 3층 석탑



노학동 3층 석탑

나. 노학동 3층 석탑(무당골 사지 3층 석탑)⁷²⁾

낮은 구릉에 둘러싸인, 속칭 무당골이라 불리는 200평 정도의 골짜기에 위치한 이 무당골 사지에는 현재 석탑 1기와 절터라고 추정되는 곳에 기와 조각과 담장으로 추정되는 석축이 남아있다.

이 석탑은 안상(眼狀)이 새겨진 기단부와 1층 탑신, 1층 옥개석, 2층 옥개석과 3층 탑신, 3층 옥개석, 노반석이 각각 1석으로 된 탑신부로 구성되어 있다. 1층 탑신 4면에 연화좌 위에 사방불(四方佛)이 조각되어 있고, 연화좌 하부에도 양련(仰蓮)

72) 이 사지는 10여 년 전에 등산객의 제보를 받고 속초문화원, 역사교사 모임, 속초시 문화공보실 등이 조사하였고, 그 후 다년간의 노력 끝에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영동 지방의 석탑 중 1층 탑신에 사방불이 조각된 예는 이 탑 이외에는 진전사지 삼층 석탑과 강릉시립박물관 앞뜰에 있는 석탑재(탑신부)에서 찾아 볼 수 있어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전체적인 석탑 양식으로 보아 고려 시대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1999년 12월 28일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21일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 127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다. 유물재비(兪勿齋碑)

원명은 물재 유선생 유허비(勿齋兪先生兪墟碑)로서 조선 후기에 이 고장에 거주한 유명한 학자 물재(勿齋) 유희일(兪晦一)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다. 비문은 예조 판서(禮曹判書) 조관빈(趙觀彬)이 짓고, 글씨는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홍봉조(洪鳳祚)가 썼다. 원래 이 비석은 새로 조성된 마을에 있던 것인데, 일출봉 횃집 뒤 철길 옆으로 이전하였다가 현재는 대포동 파출소 뒤편에 이전하여 보전하고 있다.

물재(勿齋) 선생은 학자이자 효자로 이름이 높아 그의 사후 선생을 제사지내는 사당이 건립되었다. 그 후 사당이 퇴락되자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세운 유허비(兪墟碑)가 바로 이 비석이다.

라. 박지의 효자각(朴志誼 孝子閣)

이 작은 박지의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고종30년(1893)에 건립된 것이다. 효자 박지의는 조선 정조(正祖) 23년에 태어난 사람으로 성품이 청렴결백하고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또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여 헌종(憲宗) 임금이 승하(昇遐)하셨을 때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와 같이 3년간 상복(喪服)을 입고 망곡(望哭)하였다고 한다. 고종 임금께서는 이 같은 박지의 효성과 충성심에 감동하여 정려각(旌閭閣)을 하사(下賜)하고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使)라는 관직을 내렸다 한다.



박지의 효자각

■ 참고 문헌

1. 《三國史記》
2. 《新增東國輿地勝覽》
3. 《輿地圖書》
4. 《襄陽府邑誌》
5. 《擇里志》
6. 《峴山志》
7. 《關東誌 13》
8. 《大東山川》
9. 《大東地志》
10. 《關東邑誌》
11. 《東國名山記》
12. 《東國輿地志》
13. 《江原道 襄陽郡邑誌》
14. 《江原道 襄陽郡邑誌2》
15. 《增補文獻備考》
16. 《朝鮮地誌資料》
17. 《朝鮮道俯郡面町洞里改正區域表》
18. 《江原道誌》
19. 《襄陽郡邑誌》
20. 《杆城郡邑誌》
21. 《世宗實錄》
22. 《戶口總數》
23. 《神興寺史蹟》
24. 《練藜室記述》
25. 조선총독부, 《朝鮮寶物古蹟調查管理》, 1942.
26. 《神興史記》
27. 주상훈, 《束草의 地名》, 속초문화원, 1990.
28.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옛 文獻속의 束草》, 속초문화원, 2001.
29. 김정우, 《내 故鄉》, 강원일보사, 1997.
30. 한글학회, 《한글 땅이름 큰사전》, 1991.
31. 속초시, 《市政30年史》, 1994.
32. 강릉대학교 박물관, 《束草市 歷史와 文化遺蹟》, 속초시, 1997.
33. 《동아대백과사전》
3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67.
35. 藤戶計太, 《最新 朝鮮地理》, 경성일보사 대리부, 1918
36. 고성군문화원, 《지명유래지》, 1998.

부록 1

1. 최신 조선 지리 / 155
2. 동국명산기 / 159
3. 강원 각군 일반정형 / 163
4. 호구총수 / 167
5. 조선지지자료 / 171

最新朝鮮地理 (江原道)

大正七年 四月 十三日 印刷
京城日報社代理部

東國名山記

惺海應(1760~1839)이 전국의 명승지에
대하여 설명한 책이다.

편년은 미상이며, 전국 각지의 유명한
山·水·溪谷·臺·潭·亭 등의
위치, 형세, 형승, 고사, 명인의 所居 사실등을 설명하고 있다.

曲洞在寒溪雪薇之間自藍橋驛涉寒溪下流抵一
 寺北漸險絕攀崖緣磴下臨危壑復至一岡望見瀑
 布自北來甚壯過大夾巷復行二十里得松林大溪
 乃曲百洞洞府也洞深可二丈庶裏數百步清流見
 底色如綠玉又過熊井洞緣崖數百步得一奧處可
 耕其東數十里可至五歲巷過吉洞黃腸瀨山脚遮
 水口曰千春嶺谷壑翁所命名行可一里有俗稱負
 轉巖抱轉巖過此歷虛空橋而出洞口潭上有四五
 峯即三洞所名五老峯

雪薇

雪薇極高峻八月始雪至夏始消名雪薇其陰則夏
 陽其陽則麟蹄象之勝稍食堂潔繼祖窟麟之勝稍
 曲百潭深源寺三洞精舍十二瀑鳳頂巷閉門巷
 俞泓窟在蓬潭之傍由永天菴東渡湖穿竹林中緣
 縹緲磴數里而至雲母潭石淺瀨清多產雲母故名
 又穿穹林至危潭雲松頻鏡出趣又前至俞泓窟泓
 以江原道觀察使遊此山避雨之所溪水兩道合于
 窟側南向十二瀑東向閉門巖
 閉門巖在俞泓窟傍兩崖撐霄豎為石扇鋪為壑陀
 整為階級湍與瀑相承上潭淪連下二潭澄澈潭東

自然經室藏

西又有大巖可坐
 鳳頂即薇之極處由閉門巖行五里至冰壺洞口舍
 溪而南即鳳頂徑也曠然易失故僧徒累石而標之
 至大巖巖巖石層疊如積藏經者也登數百步大海
 端前摩山皆在脚下緣崖而南有塔突兀仍巖為跌
 凡三級其北隙地稍夷是名塔臺東下數百步為菴
 背負摩巖儼若神衛一峯特臨菴如鳳東帶危乎欲
 墮菴名以此
 十二瀑布自鳳頂而至幾二十里巖路手絕披險而
 至雙瀑垂馬因落于一潭東程南長而瀑之上復有

三瀑飛流空濛紫翠無際緣磴而西始拉潭側潭注
 然可百間溢為下潭廣亦如之上方下主下潭又溢
 為亂瀑所見不如為十二也由雙瀑可十五里而為
 上水簾石而瑩滑南望一石撐空隱約是雙瀑之源
 也再行五里至下水簾洞府宏敞復有潭瀑之勝
 深源寺由曲百潭屢過危棧得一峻巖又循溪行可
 五里而前至前峯頻奇峻溪流激激清夜尤有聲
 三洞精舍即永矢菴也在寺東數里直書棧有峯一
 帶橫闊如禽獸形其狀百千色又皎潔即高明峯也
 五歲菴昂梅月堂所居自閉門巖之右踰一峻嶺曰

自然經室藏

萬景臺由此而至峯巒尤秀異

萬景臺一石峯也最前石崖斗斷下臨無地上更峻

削僅容一人坐

青峯即嶽之最高處鳳頂乃暹之以其高摩穹蒼遠
見只縹緲而青故指其絕頂而名曰青峯圖而不峭
高而不削亭亭植立若巨人然過水簾洞登獅子頂
歷巖若臺毘臺自此山頭陣石城列其最高處飛
鳥不能過石而準乎有丹書逆相傳永節諸仙題石
處由此可抵峯上然以其險絕也三瀾僅一二陟陶
峯亦一上云山皎潔如雪乃雪嶽之所稱也自青峯

走東南連亘五色嶺者是上雪嶽自上嶽而南將為

寒溪中間特起為仙掌諸峯者是中雪嶽又自北而

來巖及鳳頂後崛起為高明諸峯之祖者是下雪嶽

普門峯在雪嶽之東自稟陽登嶽卷據五分之四而

高為峯前近地有香龕臺奇巖層積坐其上可指羣

峯東臨大海可觀日出下有萬丈崖深

食堂泉石在普賢下流十里巖泉灑落洞府宏暢丹

崖翠壁夾之雪嶽遠峯映帶雲外

土王城瀑布在食堂下十餘里巨壁參雲瀑流中劈

而下甚奇壯東距海可二十里

江原各郡一般情形

1892년(고종 29년)에 강원도 각 군의 官政 三政 등을
조사하여 엮은 책이다.
모두 4책으로 구성되었으며, 제 1책에 강릉, 양양, 간성, 고성
이 수록되어 있다.
표지에 “임진년 11월”이라는 기록과 책의 내용을 통해 편찬연대를
알 수 있으며 내용에 戶布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호포가 시행된 것이 1870년(고종 7)이기 때문에 임진년인 1892년에
이 책이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於諸族是如是名齋

〔新谷津村居元順道居在該津悲蕭勢饒恃頑行賂為渠伎倆非但作孽於津民莫敢誰何且為夫和於族戚人所惡忿是白齋〕

襄陽

〔官政改治自嚴威政或老鍊是白牙夾八條目之發令某新及為構捏之意象吏手而專任施措便同微討之計是乎所推棍之差使殆無虛日勤勞之殘民蕩在暫時

是如至於燕邑杆城而惡聲暫路是白齋

〔民隱段官赫之出沒侵漁別賈之濫排微索民難走保是如是白齋〕

〔軍政改通計戶數三千六百五戶以五戶作統每統布一尺錢一兩五錢五分合布六百十三尺錢九百五十五分以捧上納已成芒規是白齋〕

〔結政改結總九百八十六結九十三頁每結四十二兩式排捧亦為邑例以萬各搯錢布上納是白齋〕

〔遷政改款遷各教二百五十二戶內五百三名作錢上納二百四十二名本色捧納而累無為弊是白齋〕

〔奸鄉段時掌議崔仲武以其無憚之類符同邑吏李奉相退被遠山居金弁敬庸東海廟禁護松楸無難斫伐作板潛資分掃私索是如多有人言是白齋〕

〔循吏改戶長李璇謨初名秉謨兒名玄賢以一邑權吏信任于官家擅行威力恣意做事構產罪名勒討殘民而分半歸私請債饒戶而置產不報是如聽

閔浪藉首刑吏金翼善與李璇謨合意隨從一而二也是如是白齋

〔檀房邑史趙理叔段無難於官欲肥于己各等別賈與官用物種憑藉濫排不有餘地所謂如于度價一不出給是如是白齋〕

〔林泉居盧哲孫補以班名挾勢恃富設局於渠家聚徒而雜技效債奪券蕩產此有如是白齋〕
〔丹墾房廢政改令不能剛明計弊亦從難免而廢無可

論是白齊

科雲察訪

一官政段前等違已日久新官姑未下批是白齊
 一驛弊段本驛道掌十六各站延以察訪之數違收歛分
 排夥多不能支保中竹浦即稍察之驛而復結及佐帶本
 驛吏金錫九渠自都結獨專其利驛民漫散公用排錢
 移徵於隣站是如惡言不能是白齊

杆城

一官政段喪違已過數朔故令從無一評是白齊
 一民隱段不恒之收斂滋其株卒之討索無前難以支
 保是如吳白齊

一軍政段八面民力二千二百六十二斗春每斗七斗二分秋每斗
 六斗六分合錢三千五百七十二兩九錢六分春秋收捧上納是
 白齊

一結政段實結五百元正結二頁五束每結米一石七斗六斗租
 十四斗四升錢六兩三錢四分式收捧以高工納與公用是白齊

一遷政段遠各教六百九十四元正一斗一合內四百九十九元作

錢正納二百四十九斗一升一合本色捧納以爲支故及應下是白齊
 一奸鄉猾吏段栢洞居尹聖守以前日鄉任行事多尚不
 謹而應後弊移去于忠州地莫于與田庄在本洞今尚出
 沒象傷嗽囁無官渠之年久債錢雖零鎖錢兩邊上加
 利成教幾百兩列錄幾十名屢差推捉絡繹不絕一境駭
 擾衆口皆惡而吏無補猶是白齊
 一所弊房廢段無人可言是白齊

一驛弊段或都結而專利或預賣而逃躲以此各驛中室元
 室是白齊

一本郡如津居延學俊趙德秀兩漢以揮羅羅主今年與稅
 軍三千名揮羅得財多至五千金而宜與稅軍均分無一分所
 給來自沒各稅軍輩恟於勢力敢怒而不敢言是如呼覺浪
 籍是白齊

一海上面林川居林乃用段節七鄉中人也本郡有八面書負而
 自來書負任於將校矣近年去城郭內西面付之吏其餘則付

戶口總數 一

《戶口總數》는 18세기 후반 전국의 인구 자료를 정리해 놓은 인구 통계집이다.

총 9책으로 구성된 필사본 도서로서 편찬자, 편찬시기, 편찬경위, 서문 등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영조 10년 갑인년(1734) 11월 초2일 本府 草記에 壬辰年 兵火 이전의 帳冊이 하나도 보존되어 있지 않고, 萬曆 병오년(1606년, 선조39)이후에 남아 있는

책도 완질이 아닌 것이 많으며 崇德(崇禎?) 기묘년(1639년, 인조17)이후 비로소 갖추어 남아 있으므로 승덕 기묘년 이후

각 식년의 호구총수를 두루 살펴 올린다고 하였다.

《호구총수》의 체제는 제1책은 1395년(태조4)부터 1789년(정조13)까지의 전국의 호구와 1789년의 한성부 호구를 기록하였다.

戶口總數第三冊原香道

初北面 樓門上里 和 中里 初下里 津 坪里 道 納里
木谷里 四 淵里 香 柳里 東 沙 東里 道 納里
述 北里 金 洞里 松 毛 赤 里 其 谷 里 威 廟里
元戶八百五十八口 三千五十九 男一千七百五十三 女一千一百五

嵐谷面 精洞 里 楡 邑 里 羅 里 直 浦 里 東 沙 里 松 館
里 背 必 里 梧 桐 里 楸 田 里 秋 邑 里 泥 浦 里
元戶六百五十三口 二千四百九十八 男一千一百七十三 女一千五

二東面 由 尾 洞 里 松 崎 里 高 才 里 新 安 里 廣 洞 里
搭 洞 里 交 石 里 二 東 里 扶 老 里 朋 友 里
和 川 里 方 日 里 安 味 里 櫻 洞 里 知
元戶六百五十三口 二千四百九十八 男一千一百七十三 女一千五

元戶五百六十三口 二千三百三十九 男一千一百六十五 女一千一十四
泗東面 新 邑 里 泥 輪 里 熟 方 里 小 月 里 奇 洞 里
交 石 里 楸 輪 里 道 里
元戶四百八十四口 一千八百九十五 男九百四十九 女九百四

長楊面 溫 井 洞 里 金 剛 院 里 赤 輝 里 上 新 院 里 小
新 院 里 上 羅 里 下 羅 里 增 月 里 楸 洞 里 小
元戶八百七十六口 三千三百三十四 男一千九百三十五 女一千

元戶八百七十六口 三千三百三十四 男一千九百三十五 女一千

元戶八百七十六口 三千三百三十四 男一千九百三十五 女一千

五四

水入面 大 里 登 里 坪 里 古 方 里 龜 川 里 松
元戶五百六十六口 二千二百八十二 男一千一百四十一 女一百

襄陽面 六十七口
元戶一千七百四十一口 六千一百一十四 男二千二百二十七 女一千五百一十四

府內面 南 門 外 里 藏 內 里 青
元戶一百一十二口 四百六十八 男二百五十九 女二百九

松山面 三 浦 里 里 女
元戶七十二口 二百二十四 男一百一十三 女一百一

沙峴面 沙 弁 橋 里 後 洞 里 魯 洞 里 長 山 里
元戶一百五十三口 三百三十五 男一百七十七 女一百七

東面 古 松 峴 里 金 剛 里 水 路
元戶八十口 二百四十九 男一百三十七 女一百一十二

部南面 日 里 居 赤 里 鹿 門 里 水
元戶九十五口 三百九十八 男二百二十二 女二百七十六

西面 龜 池 里 西 林 里 龍 川 里 香 公 里 五 色 里 上
元戶二百三十五口 八百二十七 男三百三十七 女四百

南面 神 孫 里 陽 穴
元戶八十三口 三百五十一 男一百九十三 女一百五十八

朝鮮地誌資料

江原道 四

種別地名	江原道	襄陽郡	面	效
里洞名	蘆山	洞	蘆洞	
	扶月	里	扶月里	
	外苑	津里	外苑津里	
	丁庫	里	丁庫里	
	土旺	城	土旺城	
	獐項	里	獐項里	
	上通	門	上通門	
	中通	門	中通門	

種別地名	江原道	襄陽郡	面	效
里洞名	所川	洞	襄陽郡所川洞	
	道門	洞	道門洞	
	沙峴	洞	沙峴洞	
	位山	洞	位山洞	
	郡內	洞	郡內洞	
	部內	洞	部內洞	
	西	洞	西洞	
	東	洞	東洞	
	南	洞	南洞	

種別地名	江原道	襄陽郡	面	效
山谷名	靑松	山	靑松山	
	天吼	山	天吼山	
	建摩	山	建摩山	
	中旺	山	中旺山	
	靑松	山	靑松山	
	松岩	山	松岩山	
	靑松	山	靑松山	
	水田	谷	水田谷	
	五峰	山	五峰山	

種別地名	江原道	襄陽郡	面	效
里洞名	下通	門	下通門	
	內功	洞	內功洞	
	大浦	洞	大浦洞	
	上福	洞	上福洞	
	中福	洞	中福洞	
	下福	洞	下福洞	
	四龍	洞	四龍洞	
	石橋	洞	石橋洞	
	間村	洞	間村洞	
	屯田	洞	屯田洞	

月 詳 也 志 記	種別	江原道	襄陽郡	面	攻
	地名	渡津名 靑草湖 南涯浦 雙岩浦	名 證 文	備	
	文	속서이름 縣南面南涯里 縣南面南涯里 東面柯坪里	備		
	備				

月 詳 也 志 記	種別	江原道	襄陽郡	面	攻
	地名	寺刹名 神興寺 洛山寺 明珠寺 靈穴寺	名 證 文	備	
	文	신공사 沙峴面前津里 沙峴面前津里 靈穴寺 靈穴寺	備		
	備				

大 浦 城	種別	江原道	襄陽郡	面	攻
	地名	城堡名 權金城 土旺城	名 證 文	備	
	文	권고성 道門面土旺城里 土旺城	備		
	備				

水 山 津	種別	江原道	襄陽郡	面	攻
	地名	浦口名 東津 氣津	名 證 文	備	
	文	所川面東草里 道門面大浦里 道門面大山里	備		
	備				

부록 2

- 사진으로 보는 속초 / 179



옛 도문면(道門面) 위치

조선시대의 도문면은 상도문리(上道門里), 하도문리(下道門里), 물치리(勿淄里), 대포리(大浦里), 웅진리(翁津里), 신흥사(新興寺)였다.



옛 소천면(所川面) 위치

조선시대의 소천면은 논산리(論山里), 부월리(扶月里), 속초리(束草里), 속진리(束津里)였다.



청호동 전경(배다리 - 주교)

예전에는 청호동을 배가 닿는 부두, 반부둑 또는 배다리라고 하였다.



해방전 갯배나루 전경



신수로가 건설된 현재 청호동 전경
예전의 속초지역을 왕래할 때 다니던 주요도로로 청호동과 속초리, 속진리를
배로 건너 다니던 곳, 일명 배다리라고 한다.



1954년 청호동 전경



속초문화회관 옆 로타리 전경

좌측의 속초시 문화회관으로부터 동진리조트 앞쪽 일대를 개안골 이라고 했고, 우측의 법원일대를 장안골 이라고 했으며, 현재 시외버스정류장이 위치한 곳은 우렁골(우용골)이라고 하였다.



1979년 속초문화회관 옆 로타리 전경



영랑동에서 본 시내 전경



1964년 시청앞 광장에서 본 시내 전경



영랑동에서 장사동으로 본 전경



1960년대 영랑동 마을 전경



현 속초 교통 변화가 전경

예전의 이곳일대는 넓은 평야지대였으나, 오늘날 신시가지 모습으로
탈바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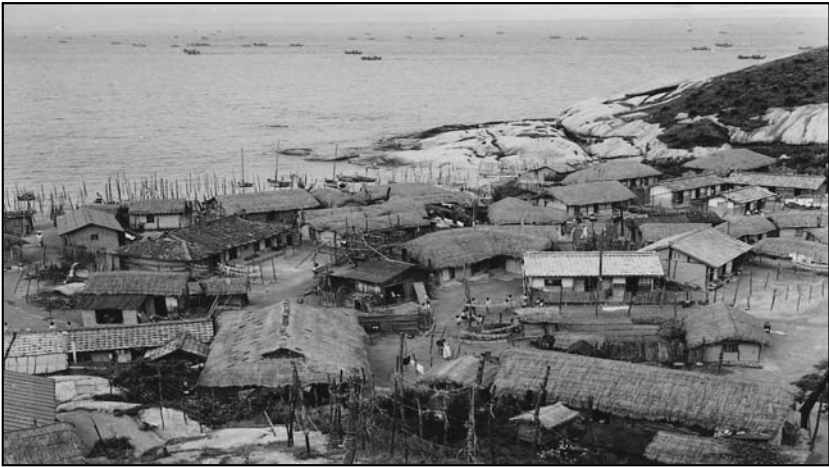


1980년대 아남프라자 앞 전경



영랑동 바닷가 마을 전경

동쪽을 새쪽 또는 삽짜개라 하고, 남쪽을 마쪽 또는 마짜개라 불렀다.



1960년대 영랑동 마을 전경



1950년대 청초천 전경



권금성에서 바라 본 울산바위



권금성에서 바라 본 달마봉



권금성에서 바라 본 신흥사



속초문화회관 뒷길 전경
개안골, 개안논이 있었던 지역



옛 속초리에 속하던 지역 전경



현, 속초소방서 앞 지역 전경
윗쪽의 부영아파트가 보이는 지역이 논산리(論山里)지역이다.



현, 영랑호 가는 길 전경



영랑동 마을 전경

영랑동은 속초리 1구에 속하던 지역으로 현 지역이 1구 시장이 있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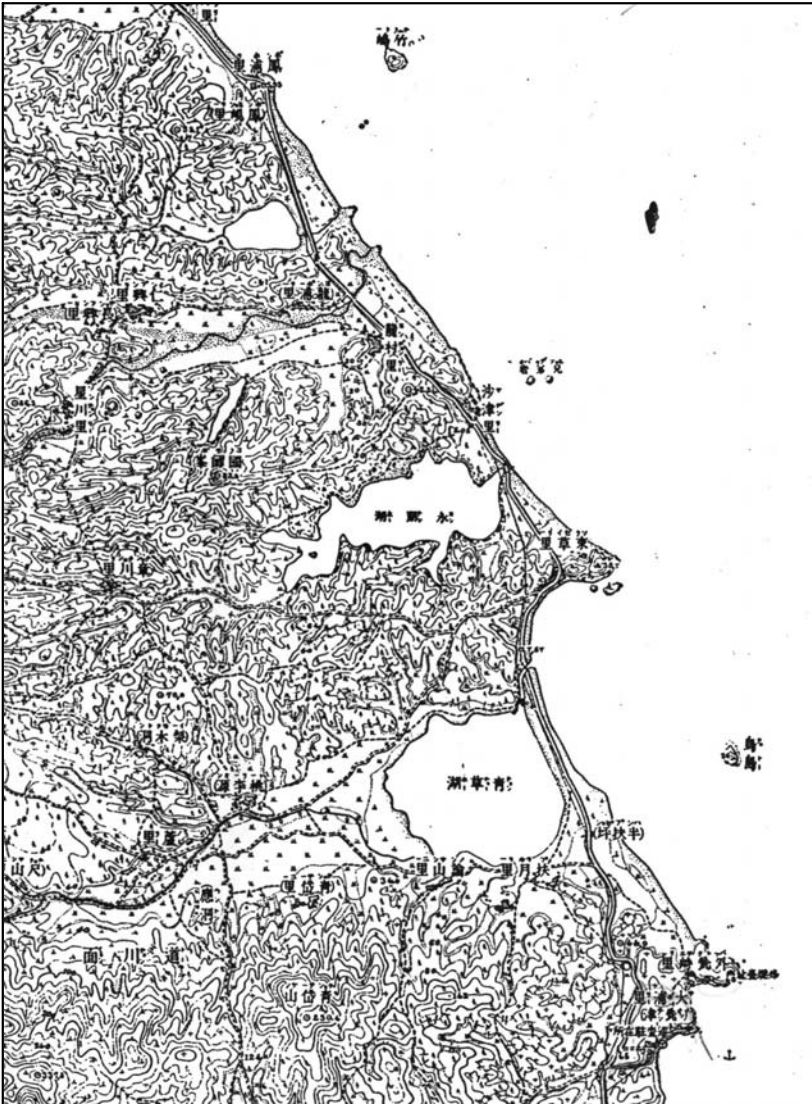


설악중학교 뒷 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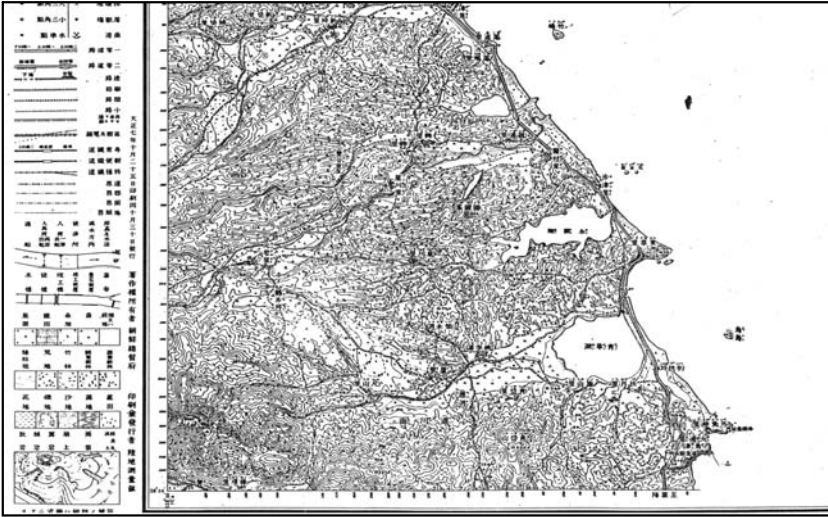
예전에는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던 산(山) 지역이었다.

부록 3

● 지도(地圖) /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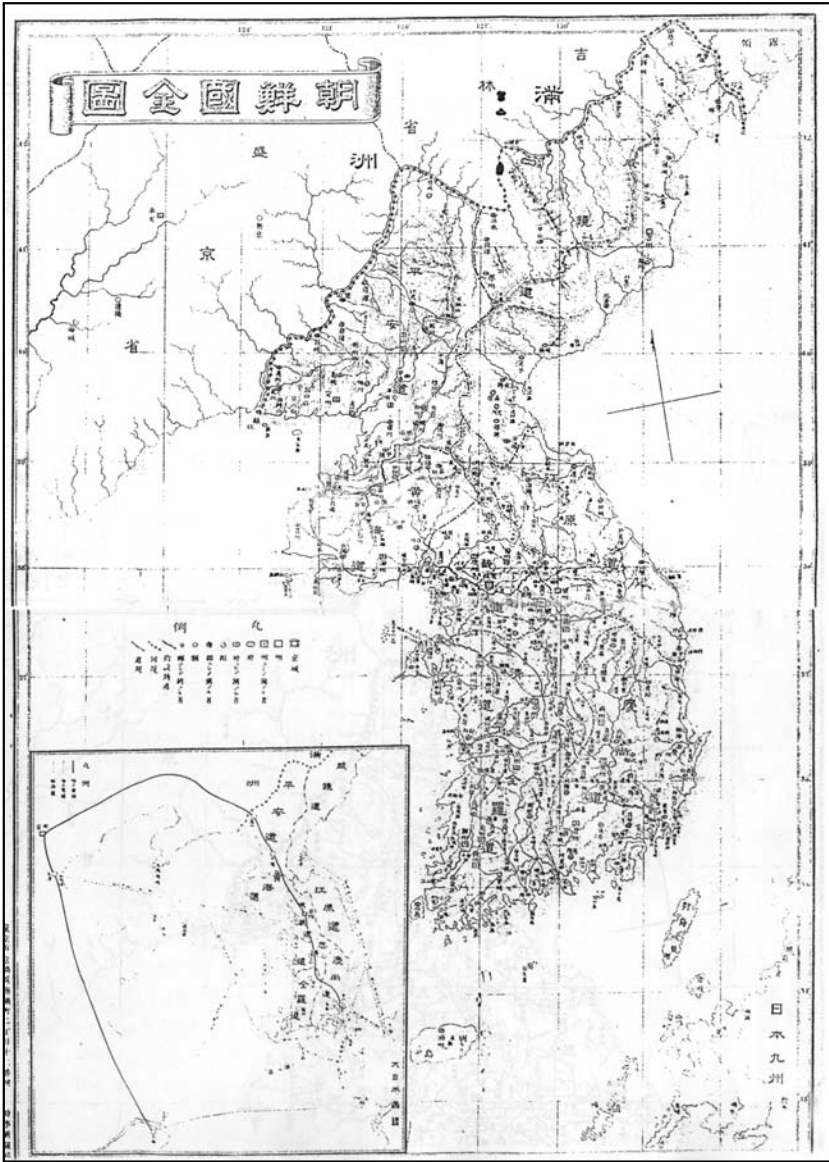
1915년 속초지역 지도(조선총독부 제작)
청호동과 속초리를 연결하던 주도로를 확인할 수 있다.



1915년 속초지역 지도(조선총독부 제작)



1915년 설악산 지역 지도(조선총독부 제작)



조선국전도(朝鮮地誌, 조선국전도, 1895년<고종32>, 학부편집국)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17세기후기, 고려대도서관 소장)



해좌승람(海左勝覽, 강원도, 19세기 후반). 출전 《한국의 옛지도》, 영남대박물관, 1998



동람도(東覽圖, 16세기 목판본, 개인소장)

■ 항공 사진



속초 시내 전경



속초리와 속진리에 속하던 지역



속초시 전경(항공사진)

■ 편집 후기

우리 지역의 땅이름을 정리하여 세상에 내 놓는다. 늘 같이 하면서도 같이 하는 소중함을 잊을 때가 더 많은 ‘이름’에 관한 작업이기에 느낌이 사뭇 새롭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는 시린 역설(逆說)이 가슴을 얼얼하게 한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대로 담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삶이 삶다운 삶일 것이건만. 우리는 걸어온 길을 돌아볼 시선하나 마련하지 않은 채 그냥 질주를 위한 질주만을 거듭하고 있다. 땅이름을 정리하면서 되돌아보는 시선 하나를 우리 삶에 더하고 싶었다.

이름은 사상(事象)의 기초이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그에 맞는 이름을 갖기 마련이다. 우리가 어떤 사상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의미를 인식하는 행위이며, 또한 그 사상을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노래하지 않았다. 빠름보다는 느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이 시점에, 우리가 던고 서 있는 땅이름을 살피며, 오늘 속의 과거를 들추고 과거 속의 오늘을 찾는 이 작업이 모두에게 ‘의미 찾기’의 뿌듯함을 주리라. 미흡함이 많은 글이지만 우리 지역의 땅이름에 대한 정리와 연구는 물론 완료형이 아니기에, 더 나은 노력으로 부족함이 채워지길 기대하는 진행형으로 남겨 둔다.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속초(束草)의 옛 땅이름

펴낸이 / 최용문
엮은이 / 한정규
펴낸곳 / 속초문화원
참여 하신 분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손병섭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국사편찬 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양양여자중학교 교사

김정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고성고등학교 교사

박진용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한국국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속초고등학교 교사

한정규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국사편찬 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간사

정종천 속초시 문화재전문위원
국사편찬 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노광복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소장

도움 주신 분 / 김정우, 김교식, 박용범, 박영식, 노광복, 김형관

편집 및 찍은 곳 / 열린마당 033)636-3636
인 쇄 / 2002년 12월 20일
발 행 / 2002년 12월 21일
주 소 / 우. 217-010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전 화 / 033) 632-1231. 639-2439
전 송 / 033) 632-1241
홈페이지 / www.sokcho-culture.com
전자우편 / sc1241@sokcho.org

※ 이 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 글과 사진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